



**SPECIAL THEME**

백 마디 말보다  
소중한 한 번의 포옹

- FOCUS | 2011년도 단체교섭
- PEOPLE | 세시봉 이장희
- 클로즈업 | 강원지방본부
- 프로포즈 | 본사지방본부 금산위성센터지부



**[뽀]의 옛말**

두 발을 모아 몸을 솟구쳐 앞으로 나아가는 몸짓을 뜻하는 말로  
높은 곳으로 오르거나 넘어서는 KT노동조합의 위상을 상징



(463-71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T | 031)727-2820 F | 031)727-4815



## 지금은 ‘로컬 푸드’ 시대입니다

일본은 지금 ‘지산지소(地產地消)’ 운동이 한창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인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신토불이(身土不二)’ 운동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토불이 운동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국산품 애용 운동에 머물렀다면,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은 ‘로컬푸드(Local food)’ 개념에 가깝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내 고향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먹을거리를 이용하자는 지속가능한 소비활동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이용하면 식품의 선도 등 안전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으므로 운송에 드는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는 신선하고 믿을 만한 농산물을 싸게 구입하고 농민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결국 로컬푸드 운동은 농민과 소비자, 농촌과 도시, 농업과 환경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형마트 대신 가까운 시장을 이용하거나, 농업인과 직거래가 가능한 생협\* 매장 등에서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농업과 환경, 더불어 건강까지 지키는 로컬푸드 운동! 오늘부터 가까운 직거래매장의 단골손님이 되어 보세요.

# CONTENTS Vol.7

- 04** KTTU FOCUS
- 10** KTTU NEWS

### + SPECIAL THEME

- 12** COVER STORY  
포옹
- 16** TALK TALK TALK
- 20** PEOPLE  
세시봉 이장희

### +KTTU NETWORK

- 24** RESERCH 01  
합병 2년 KT, IT컨버전스 그룹으로 탈바꿈
- 26** RESERCH 02  
KT그룹노조협의회
- 28** ISSUE  
복수노조, 노동조합 운동 지혜가 필요한 시대
- 32** CLICK 01  
제12회 연합회장기 쟁탈 KT그룹 전국 야구대회
- 34** CLICK 02  
수도권네트워크워크운용단 체육행사
- 36** TREND  
스마트 TV,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

### + KTTU FAMILY

- 40** 클로즈업  
강원지방본부
- 44** 프로포즈  
본사지방본부 금산위성센터지부
- 50** KTTU 현장  
금산위성센터지부 위성전송팀 박규서 조합원
- 52** 해피투게더  
KT게임월드 동호회
- 56** 행복한 오후  
역사의 성지로 떠나는 가족여행

# KT노동조합 2011년도 단체교섭 타결



2011년도 단체교섭 협정이 체결됐다. KT노동조합은 5월 27일(금) 조합원총회를 통해 '2011년도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6.1%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 사측과 단체교섭협정서에 정식 조인했다. 이로써 노동조합은 전년 대비 평균 3.9% 임금 인상 등의 실질적 성과를 얻게 되었다.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총 3회의 본교섭과 4회의 임금실무소위원회, 축조심의를 포함한 6회의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 3회의 복지기금협의회를 열고 열띤 협상을 벌였다.

노동조합은 5월 27일 '2011년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최종 집계결과 94.5%의 투표율에 96.1%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 난항 거듭한 1개월간의 대장정

KT노동조합은 지난 4월부터 지방본부위원장 회의와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임금 및 복지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최종 확정, 4월 28일(목) 단체교섭에 앞선 상건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1년도 단체교섭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첫 본회의부터 노사는 3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노동조합 7대 요구안을 일괄상정한 뒤, 임금·복지·단체협약 각 분야별 요구안을 실무소위를 통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의 7대 요구안은 ▲임금조정계수(α)를 1.08적용(기준연봉 평균 8% 인상) ▲고객서비스직군 기준 연봉 상향 및 보수체계 개선 ▲급식통근보조비 273,000원 상한제 폐지 ▲복지기금 1,000억 원 출연 ▲기존협약 15개 조항 개정 ▲노조전임자 처우관련 8개 조항 신설 ▲CS만족을 위한 일체복 지급 등이었다.

이어 노사는 5월 2일(월), 단체협상과 관련해 1차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교섭에 돌입했으나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쳐 검토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에 동의하고 정회했다.

5월 3일(화)에 열린 1차 임금실무소위원회에서도 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사측은 경영사정과 통신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조합 또한 사측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음 날인 5월 4일(수)은 제1차 사내근로자복지기금협의회를 열고 복지 분야 2대 요구에 대한 실무교섭이 시작됐다. 조합은 복지기금 1,000억 원 출연과 CS만족을 위한 일체복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 요구대로 라면, 금년도 목적사업비를 초과하게 되며, 일체복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낮아 어렵다고 주장하며 정회했다. 이날 오후 함께 속개된 1차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은 회사가 제안한 단체협약 20개 조항 신설, 43개 조항 개정에 대해 "조합은 고심 끝 타임오프 적용시 전임자 처우에 꼭 필요한 8개 조항 신설과 기존협약 15개 조항 개정만 요구했는데, 회사는 노사간 신뢰를 고려치 않고 준비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축조심의를 통해 논의키로 하고 정회했다.

네 차례의 실무소위원회를 거쳐 열린 5월 12일(목) 단체교섭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 7대 요구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1시간 30분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듭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5월 13일(금) 속개된 임금실무소위원회는 노동조합 3대 요구에 대한 진전된 합의 없이 또다시 50분 만에 정회했다. 조합은 회사의 경영난 강조와 α계수 검토 입장 되풀이에 대해 "α계수조정에 대한 진전된 논의 없이는 어떤 지름길도 택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 96.1% 찬성으로 단체교섭 협정 체결

5월 16일(월), 노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속개, 복지 분야 2대 요구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날도 사측은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 정회했다. 5월 17일(화) 속개된 임금실무소위원회 역시 임금 분야 3대 요구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으나, 확연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임금조정계수(α) 1.08적용' 요구에 회사는 '1.015적용'을 답해 조합 실무교섭위원들을 공분케 했다. 한편, 사측은 고객서비스직군 기준연봉 월 15만원 요구에는 5만원 상향을, 급식통근보조비 상한선 폐지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오히려 신입사원 보수체계 및 인사평가제도 변경을 요구했다.

다음날 단체교섭 2차 본회의가 속개되어 7대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가장 중요한 임금안에 대해 사측은 실무소위원회를 통한 기존 제시안 적용을 재차 주장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5월 19일(목),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와 임금실무소위원회가 연달아 속개되었으나 사측의 무성의한 입장고수에 결국 노동조합은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며 폐회를 선언해 파행을 맞기에 이르렀다.

이 날까지도 노사는 첫 회의에서 노동조합 7대 요구를 일괄 상정한 이후, 진전된 제시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측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KT의 모든 지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요구에는 등을 돌렸다.

5월 23일(월)에는 단협실무소위원회를 속개, 현안 52개 조항 중 44개안에 합의했으나 쟁점사안이 큰 8개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보지 못했다.

다음날인 5월 24일(화), 노사는 단체교섭 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마침내 협상 26일 만에 '가합의안'을 도출, 가협정을 체결했다. 통신 시장과 경영여건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내세우는 사측의 입장으로 막판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임금분야에서 실질적 인상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은 것이다.

노사 간의 거듭된 진통 끝에 가결된 가합의안(안)은 ▲임금조정계수 알파 1.03적용, ▲신입사원 기준연봉 월정액 월18만원 인상 ▲고객서비스직 기준연봉 월정액 월10만원 인상, ▲사내근로 복지기금 760억 출연 ▲15만원 상당의 일체복 지급 ▲자기계발비 5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 분야와 관련해서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를 앞두고 조합의 제시안을 상당부분 관철시키는 등 노동조합의 유지 및 발전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법령 및 정관 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부칙은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5월 25일(수) ~ 26일(목) 전국 12개 지방본부를 순회하며 각 지방본부와 지부장을 대상으로 '2011년도 단체교섭 가협정안 설명회'를 실시했고, 5월 27일(금)에는 '2011년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최종 집계결과 94.5%의 투표율에 96.1%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김구현 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집행부 3년차를 맞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답해야 했고, 조직의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서 숨가쁘게 진행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KT 노사는 상생을 기조로 전 종사원을 위하고, 더 큰 기업발전을 일궈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KT는 2001년부터 11년 연속 무분규 단체교섭을 달성했으며, 앞으로 한층 발전된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를 내다보게 되었다.



# 2011년도 단체교섭 분야별 합의안

## I. 인사제도 분야

### ■ 인사평가 단계 3단계 일원화

본/사/지 팀장 제도 도입에 따른 평가단계 정렬성 확보

주요내용

구분	현재	개선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평가 B이상 : 3단계 평가 (팀장 → 지사장 → 단장)</li> <li>인사평가 C+이하 : 2단계 평가 (팀장 → 지사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평가 C+이상 : 3단계 평가 (팀장 → 지사장 → 단장)</li> <li>인사평가 C이하 : 2단계 평가 (팀장 → 지사장)</li> </ul>
본/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평가 B이상 : 3단계 평가 (팀장 → 담당 → 본부장)</li> <li>인사평가 C+이하 : 2단계 평가 (팀장 → 담당)</li> </ul> </li> <li>본사/지원부서 : 2단계 평가 (담당 → 실/본부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평가를 3단계로 일괄 조정하여 실/본부장이 최종평가 실시 (팀장 → 담당 → 실/본부장)</li> </ul>

시행시기 : 2011년도 인사평가시 부터

## II. 임금 및 보수제도 분야

### ■ 임금조정계수(α) : 1.03

임금조정계수(α) 1.03에 의한 임금 3% 인상과 B와 C+등급 인상을 상향조정 합의 등으로 2011년도 회사 경영악화, 요금 인하 압력 등 어려운 교섭여건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비 평균 3.9%(고과인상분 포함)의 임금인상**

연도	성과	A	B	C	D	F
2009	성과/역량	A/A	B/B	C+/C	D/D	F/F
2010	인상률(%)	6.9	5.2	3.9	2.3	-0.2

※ 2009년 대비는 평균 11.1% 인상 (C-C+/C 등급 기준)

적용시기 : 2011년 1월 1일자 소급

■ **인사평가 평균 인상을 상향: 2.7% → 3.2% (0.5%p ↑)**

인사평가에 의한 연평균 인상을 지속 확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금인상 기틀 마련 확보  
- 2010년 2.7% → 2011년 3.2% (0.5%p 상향)  
- 2009년 이전 2.3% 대비 0.9%p 상향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도 인사평가 반영)

■ **신입사원 보수체계 개선: 기준연봉월정액 18만원 인상**

시행시기: 2011년 1월 1일자

■ **고객서비스직 보수체계 개선: 기준연봉월정액 월10만원 인상과 성과급 가중치 적용 및 지급시기 변경**

적용시기: 2011년 6월부터 적용시 월 기준 지급일은 55.71%

### III. 복지제도 분야

■ **일체복 지원**

일체감 조성과 CS만족을 위해 15만원 상당의 일체복 (양복 스타일)을 지원하며, 일체복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합의하여 시행한다.

지원시기: 2011년 12월 중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760억원 (별도출연금 포함)**

※ 2010년 세전당기순익(15,170억원)의 5%

■ **상호 부조를 통한 애경사 지원**

직원 애경사시 상호부조를 위해 노사간 전사적으로 시행하며, 상호부조금 조성방법(매칭 그랜트), 지급규모, 지급대상 등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합의하여 시행한다.

시행시기: 2012년 1월부터 시행

■ **자기계발비 50만원 지원(2011년 한) 및 업무용**

**휴대폰 단말 구입비 50만원 지원(2012년 한)**

임금인상에 부가하여 자기계발비와 업무용 휴대폰 단말시 각각 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추가 1.8%의 임금인상 효과 발생하여 총 5.7% 수준의 임금인상 효과를 거둠

### IV. 단체협약 분야

노동조합은 전임자 임금금지와 타임오프의 한계성을 법 규제로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복수노조의 도입과 관련하여 예측될 수 있는 다양성을 연구하여 노동조합의 유지 및 발전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기존 제도를 변경하여 현실에 맞는 접근성을 높여 업무와 복지를 유연화하여 새로운 변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참조: 중요한 조항만 해설함)

■ **유일교섭단체 및 조합원 범위 변경**

1) 단체협약 제1 조(유일교섭단체) → (교섭단체)로 변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복수노조 도입으로 유일교섭단체 지위 소멸

2) 제3조(조합원의 범위) 비조합원 범위 중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 팀장 이상의 직책에 보직된 직원(파트장 제외) 신설②항 단, 해당업무 종료시 원 소속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을 자동 회복한다.

직위에 대한 범위를 직책으로 변경하고 소팀장까지 비조합원으로 규정하며 복수노조를 대비하여 비조합 업무 복귀시 원 소속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을 자동 회복함으로 노동조합 가입 이탈을 방지하였다.

■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1) 제10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과 관련된 각종 회의 및 교육, 기타 행사~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KT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는 연간 36,000 시간으로 풀타임 근면자는 18명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 회의 등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에 참여할 경우 소요되는 인원과 시간을 연간 근로면제한도 시간에 포함하면 조합활동은 전무 할 것이다. 이에 규정되지 않는 포괄적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활동 영역을 높였으며 한도 시간에 제외함으로써 18명의 유급 노조활동가를 유지한 것이다.

■ **평균임금 항목에 초과근무가산금 및 휴일근무수당 명문화**

1) 제 46조(평균임금)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기준연봉월정액, 직무한경수당,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가산금 포함), 휴일근무수당을 3등분한 금액

2010년 단체교섭 결과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퇴직금이 삭감되었고 그 중 평균임금 항목에 휴일근무수당이 삭제되었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하였다. 그것은 휴일수당과 초과근무가산금은 보수규정과 근기법에 보장되고 있어 단체협약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뿐이다.

■ **선택적 근무시간 도입**

1) 제55조(근무시간)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본인의 시·종업시간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10시에서 16시사이의시간대를 시·종업시간으로 선택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시·종업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업무형편상 부득이 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스마트 워킹 등 일하는 방식이 새롭게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시·종업 시간을 조정하여 업무 특화성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규정화된 업무시간을 준수함으로써 기본적인 업무패턴은 유지하였다.

■ **업무로 인한 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업무 재배치**

1) 제69조(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행금지) ⑤항 신설: 회사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폭력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관련 근무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및 업무재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내의 성희롱, 성폭력이 아닌 창구의 여직원이 업무 중 민원인 상대로 모욕과 위협,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신설함.

■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신설**

1) 제88조(복리후생비 지급) ② 제1항에 의한 복리후생비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로 전환되지 않는 복리후생 항목은 종전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구 KTF의 선택적 복지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이에 따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 세부적 사항은 KT노동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8회 위원장기 조합간부 축구대회 개최



● 제8회 위원장기 조합간부 축구대회가 600여 조합간부들의 단결과 함성 속에 4월 22일(금) 1박2일간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22일 비소식으로 인해 첫날 축구대회와 계주 및 줄다리기 등 본 경기를 치른 뒤, 22일 ▲2010 활동정리 동영상 시청 ▲상조서비스 관련 조합간부 교육 ▲경품추첨과 시상 ▲2011년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했다.

첫날 치른 축구대회는 전남지방본부가 승부차기 끝 우승을 차지했고, 500m 계주와 줄다리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강남지방본부와 부산지방본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튿날 교육에서 노동조합은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쟁취한 '상조지원 서비스' 관련, 자세한 소개 및 회원가입 방법 등을 안내했다.

### 제8회 위원장기 조합간부 축구대회 경기결과

- ▲축구 1위 : 전남지방본부
- ▲500m 계주 1위 : 강남지방본부(3연패)
- ▲줄다리기 1위 : 부산지방본부(2연패)

※ 기타  
 △환경지킴이상 : 서부지방본부 △알뜰상 : 본사지방본부 △아차상 : 제주지방본부 △투쟁상 : 대구지방본부 △단결상 : 강북지방본부

## 사내 동호회(건전모임) 활성화 방안 공지



● 동호회(건전모임)의 실질적인 운영 및 임직원의 복지향상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개선사항

- 예산집행 시 기관장 승인 폐지
-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스템 보완(Kate Cafe)
- 동호회별 자율 Cafe 개설 및 예산지원
- 창의적/독창적인 동호회 신설 등

### ■ 지원금액 : 1인당 연 2만원

※ 세부적 사항은 KT노동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KT노사 YOUTH 장학증서 전달식



● 노동조합과 회사는 4월 26일(화) 오전 11시, 분당 KT본사에서 'KT노사 YOUTH 장학사업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고교 졸업 때까지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215명의 학생을 대표해 9명의 고교생이 참석하였으며, 임현재 부위원장과 조합간부, 전인성 GSS부부장 및 경영진 등이 함께했다.

임현재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먼저 노동조합과 KT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장학 사업 대상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한 뒤, "공부와 성공에 대한 의지도 좋지만, 무엇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늘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며 언제나 세상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따뜻한 시선을 잃지 말기를 당부했다. 이어 전인성 부부장은 "YOUTH 장학금은 노사가 함께 추진하는 장학제도로 그 취지와 뜻이 각별하다"고 의미를 설명한 후, "우리나라의 가능성은 미래 산업일꾼인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오늘 열린 YOUTH 장학증서 전달식은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소외계층을 도와 사회적 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사합동 HOST운동의 일환으로, 성적과 가정환경을 면밀히 심사, 전국에서 선발된 215명의 학생에게 전액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방본부를 통해 추천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사 홍보실과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엄선했다.

##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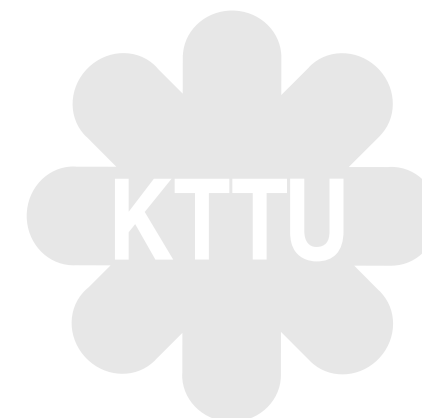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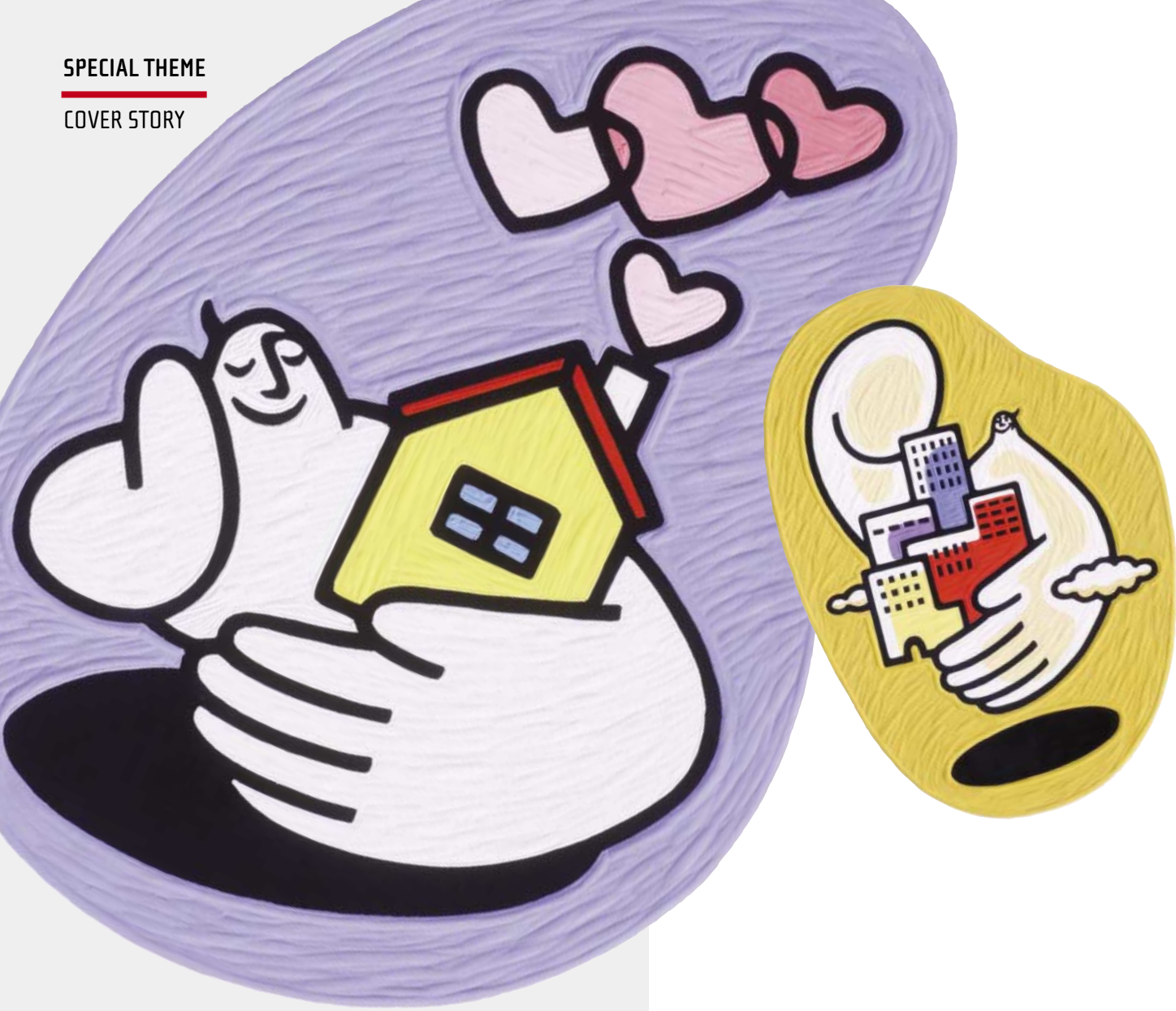
●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국제전화 001로 KT조합원 모두 지금 투표에 참여합시다.

조합원 여러분의 귀중한 한표가 KT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립니다!

※ 조합원 및 가족 1인 4통화 이상 전화 투표에 동참해 주세요.

참여방법 : 001-1588-7715 → ARS ("빠"소리 후 제주코드 7715 입력)





## 백 마디 말보다 소중한 한 번의 포옹

먼저 다가가 가만히 안아주세요!

2006년 호주 시드니의 중심가, ‘후안 만(Juan Mann)’이라는 청년이 ‘FREE HUGS’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섰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의 시선으로 그를 구경하거나 무심히 지나쳤다. 15분이 흘렀다. 자그마한 체구의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잠시 후 청년과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감싸 안았다. 외동딸이 죽은 지 꼭 1년이 되었다는 할머니는 말했다.

“참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따뜻하게 누군가를 안아 본 게...”

### 전 세계 네티즌을 감동시킨 “Free Hugs”

2006년 9월, 유튜브에 등장한 ‘FREE HUGS’ 동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포옹이라는 평범한 행위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전 세계 30여 개 나라로 ‘FREE HUGS’ 캠페인이 이어졌다. 인종과 언어, 문화가 다른 지구촌 사람들을 감동시킨 포옹(Hugs)의 힘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따스한 마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 생명을 구한 기적의 포옹

1995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한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 언니 카이리와 동생 브리엘은 체중이 1킬로그램에 불과한 조산아로 태어났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을 회복한 언니 카이리와 달리 동생 브리엘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됐다. 호흡과 맥박, 체온이 모두 위험수위. 간호사 게일 캐스퍼리언은 다른 인큐베이터에 있던 카이리를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건강한 언니가 작은 팔을 뻗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이다. 그 후, 브리엘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갔다.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감동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이후 쌍둥이 조산아를 한 인큐베이터에서 보호하는 코베딩(Co-bedding)이 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조산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저체온증인데 코베딩을 통해 위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함께 있다는 느낌,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것만으로 아기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다.

1991년 포옹요법을 창시한 캐슬린 키팅 박사는 포옹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말한다. 포옹을 통해,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느낌만으로 병세가 호전된다는 것이다. “포옹은 숨 쉬는 것과 같아요. 건강에 아주 좋죠.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숨 쉬는 게 몸에 좋으니 당신도 숨을 쉬지 그러냐고 이야기 하지 않는 것과 같죠.

포옹은 아주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거예요. 모두가 숨 쉬듯이 포옹을 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몰랐던 것이죠.” 포옹은 몸으로 전하는 몸짓 언어다.

그 언어에는 이해와 포옹, 위로와 용서, 감사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다.





###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포옹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포옹을 한다. 또 누군가를 위로 하거나 위로 받고 싶을 때, 서로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것은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본능이다. 포옹은 지극히 단순한 행동에 불과하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포옹은 남성과 여성간의 성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체온을 통해 유대와 소통을 나누는 가장 따뜻한 신체 언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가 첨단화, 도시화, 핵가족화 될수록 사람들은 고립되고 그만큼 사랑받고 위로받는 일이 절실해지고 있다. 'FREE HUGS' 동영상에 세계인이 열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 포옹이 가져온 행복한 변화들

“그저 아무말 없이 꼭 안아주기만 했다. 마음속으로 사랑한다고 외쳤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잃어버렸던 온기를 남편의 가슴에서 느꼈다. 멀어졌던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되찾아 가기 시작했다.”

- 7살 된 딸을 잃고 부부관계가 멀어졌던 30대 주부

“사람들은 모두 위로받고 싶고 안기고 싶고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포옹은 이것을 가장 쉽고 강하게 전해주는 사랑의 언어다.”

-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자

위로와 격려,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을지 모른다. 지금 당장 포옹이라는 작은 행동이 가져오는 삶의 커다란 변화들을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

### 포옹이 지닌 치유의 힘

포옹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인간의 피부는 어루만지는 동작에 의해 기분이 좋아지는 특별한 신경조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촉각은 초당 60미터의 고속신경조직망을 통해 만지는 위치나 강도와 같은 촉각 정보를 뇌로 전달한다. 그리고 C-tactile(CT)이라고 불리는 저속신경조직망(초당 1미터)은 미세한 촉감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전달한다. 특히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 감성 반응과 관련이 있는 대뇌 피질이 활성화된다. 애정을 느끼는 호르몬

인 옥시토신(Oxytocin)의 분비도 활발해 진다. 즉, 포옹과 같은 깊은 신체 접촉이 신뢰와 안정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학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자주 안아주면 아이의 지능발달과 정서안정,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포옹으로 인한 충만감이 식욕을 줄여 다이어트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 우울증 완화, 불안감 해소, 여성의 심장병 예방 등 심리적 안정 뿐만 아니라, 신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포옹이란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일 때 서로가 느끼는 진실한 위로와 이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선사한다.

### 포옹과 이해의 몸짓 언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곁에 있다는 믿음이고 포옹을 통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잠시 잊고 지낸 소중한 것들,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가슴 깊이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사랑 고백이 아닐까.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잠시 체쳐 놓았던 사람들을 향해 가슴을 열고 다가가 보자.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진심어린 포옹이 낙심한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생명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포옹은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서로의 체온을 통해 유대와 소통을 나누는 신체언어이다.

포옹을 하는 순간 우리 몸은 긴장이 풀어지면서 심장박동을 낮추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낮추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킨다.







## 당신의 희노애락, 몽땅 안아드립니다!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로의 품속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는 포옹. 때로는 백 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포옹이 전해 주는 36.5도의 체온만으로 우리는 위로받지 않았던가.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안아주며 살고 있을까. 이른 아침, 동료들의 출근길을 가로막고(?) '프리허그(Free Hug)'를 체험한 강원지방본부의 조합원 5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포옹이 조금은 낯선 한국문화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떤 기억들을 떠올렸을까?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Harry Harlow)의 애착실험을 아시나요? 아기 원숭이를 어미와 떼어놓고, 젖병이 있는 철사인형과 젖병은 없지만 폭신한 천으로 만든 인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어느 쪽에 애착을 가졌을까요? 놀랍게도 먹이를 주는 쪽보다는 따뜻하게 안길 수 있는 천인형이었습니다. 체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실험이지요, 여러분들은 평소 얼마나 포옹을 실천하고 있나요? 또 오늘 프리허그 체험은 어떠셨는지요?

**이형중** 초등학교 6학년 딸은 물론, 와이프하고도 수시로 포옹을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녀석은 이제 다 컸다고 도망을 개네요. 제가 장난기가 좀 많아서 포옹을 할 때 간지럼을 피우는데 와이프가 싫어 하더라고요, 하하.

**이미영** 초등학교와 유치원생 아이 둘이 있어요. 아이들과는 포옹을 자주 하는데, 결혼 10년 차가 되다보니 남편과는 잘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체험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서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느낌은 좋았어요. 특히 어느 정도 아는 분들과의 포옹은 더욱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이상훈** 포옹을 하면서 교감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 접촉을 좀 꺼리잖아요. 익숙해지면 외국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오늘 체험은 조금씩스러웠어요.

**김운수** 맞아요. 아는 직원들은 마음을 담아서 안을 수 있었는데, 모르는 직원들은 접근하기가 힘들더군요. 오늘 이기석 씨는 자유롭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부러웠어요. 가족과의 포옹은 자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말부부거든요.

**이기석** 저도 오늘 포옹을 하면서 동료들과 교감을 나누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즐기려고 노력한 거죠. 사실 그냥 인사를 나누기에도 어색한 분들이 있는데 포옹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그를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되고 난 후에 허그를 통해 그 친밀감을 배가시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을 보면 술플 때나 기쁠 때나 포옹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껴안으며 주고받는 느낌은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연인, 가족, 친구, 동료 간의 따뜻했던 포옹을 떠올려 볼까요?

**이형중** 아이들이 어릴 때 안아주는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 안아주는 순간만큼은 '그'와 '나'의 거리는 단 1mm도 주어지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내가 두는 거리만큼 그 사람도 제게 그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선을 긋는 순간,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거예요.

**김운수** 저에게는 스포츠를 통한 포옹도 큰 부분이에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종종 대회에도 나가는데, 이때 다양한 포옹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료가 실수를 하면 격려의 포옹을 하고, 이기면 환희의 포옹을 하고, 또 응원한 사람들과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포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훈** 물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금 제 아내와 연애할 때의 포옹이에요. 연애를 10년 정도 했는데 첫사랑이거든요. 얼마 전에는 갓 돌이 지난 아들이 먼저 다가와서 저를 껴안고는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때의 기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미영** 어제 밤에 작은 아이가 아빠 엄마랑 같이 자고 싶다고 했는데, 아이가 방에서 먼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침부터 달려와서는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아주었는데 그때 아이의 체온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아이의 마음도 누그러졌고요. 아이

들이 어려서 그런지 남편과의 포옹은 좀 귀찮은 느낌이에요. 회사일과 집안일에 바빠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훈** 남편분도 많이 안아주세요. 제 와이프가 아들만 꼭 안고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소외된 것 같고, 가끔 질투심을 느끼기도 해요. 남자도 여자의 보살핌을 받고 싶다고요.

**이형중** 저도 그래요. 아이들 공부 신경 쓰랴, 집안 살림하랴 바쁜 건 알지만 남편들도 남자로서 사랑받고 싶어 해요.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데, 와이프의 관심은 온통 아이들에게만 가지고……. 저한테는 “청소 좀 해!” “또 술 마셨어!”하고 소리만 친다니까요.

**이기석** 2년 전에 주말부부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슴 저릿한 포옹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일요일 저녁에 딸아이가 아빠와 헤어진다고 눈물을 보였어요. 그날 밤 와이프는 작은 아이와 자고, 저는 침대에서 큰 아이와 꼭 껴안고 잤어요. 아버지란 존재를 일깨워준 기분 좋은 포옹이기도 했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던 포옹이었죠.

**포옹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니 가까이 두고서도 그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원해진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힘껏 껴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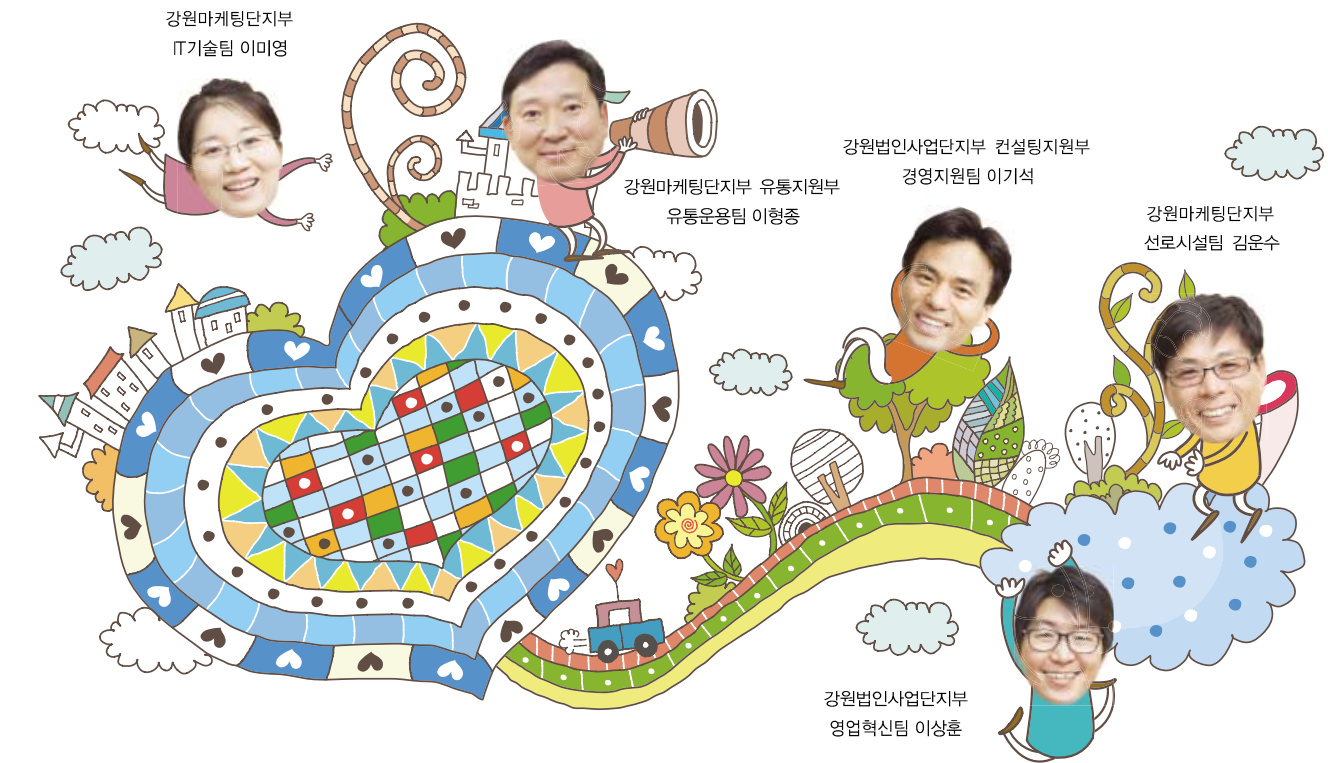
**이형중** 이거 한 두 명이 아니네요. 특히 작은 아이를 안아주고 싶어요. 어릴 때는 자기가 달려와서 포옹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애걸을 해도 안 해줘요. 2,000원을 줘야 겨우 안아준다니가요. 하하. 금전관계(?)를 떠나서 작은 아이를 꼭 껴안아주고 싶어요.

**이상훈**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회사 동기들이 강원도에 거의 없어요. 만나서 반갑게 포옹을 하고 싶어요. 반갑다, 잘 지내냐, 너의 성공을 빈다, 넌 내게 정말 좋은 녀석이다 등 한 번의 포옹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담기게 되겠죠?

**이미영**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남편에게도 잘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만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면 남편을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어야겠어요.

**이형중** 일터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쯤 ‘프리허그’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는 굉장히 친한데, 평소에는 데면데면한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팀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격려하고 친목을 다졌는데, 이것 포옹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이기석**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포옹을 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적이 있는지 반성하게 되네요. 자식들이 안기길 바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 와이프가 모시고 병원엘 갔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아버지와 와이프 모두 안아주고 싶어요.



포옹은 타인과 나와의 거리를 허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장과 심장이 맞닿으며 사랑, 열정, 격려, 용서, 칭찬 등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류처럼 한순간에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내 걸의 누군가를 먼저 다가 안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 포옹이 여러분들까지 행복하게 만들고 위로할 것입니다. ‘안는다’는 것은 ‘안긴다’는 것과 꼭 같은 모양이니까요.

# 라라라~ 다시 청춘과 추억을 노래한다

## 세시봉 이장희

요즘 세시봉 열풍이 대단하다.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로 공연장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 이장희... 중장년층에게 세시봉 친구들의 노래는 젊은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떠올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가슴을 울리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 세시봉이 떴다!

지난해 추석특집으로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러와>의 세시봉 특집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가수 조영남과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의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노래가 50~60대 시청자들의 추억과 향수를 건드린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자칫 잊고 살았던 아날로그 정서에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의 환호까지 더해져 세시봉의 인기는 신드롬으로 이어졌다.

44년 전 서울 무교동에 자리 잡은 음악감상실 '세시봉'은 대학생의 밤, 신인 가수 선발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로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등 가요사의 내로라하는 걸출한 아티스트 여럿을 배출했다. 세시봉 출신인 이장희 씨 역시 1970년대 통기타 문화를 선도한 가수로 꼽힌다. 하지만 한편에선 시대의 질곡을 온몸으로 껴안은 채 밤마다 '페드라'(신촌 대학가에 있는 작고 허름한 술집으로, 당시 운동권 학생들이 자주 모여 시국을 논하며 저항의 노래를 부르곤 했던 곳)에 모여 세시봉의 노래 대신 김민기의 '공장의 불빛'과 한대수의 '물 좀 주소'를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듯 저항과 반전, 시와 낭만이 공존했던 아련한 시기의 음악이 2011년 새삼 대한민국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현재 세시봉 콘서트의 전국 투어 예매율은 어느 가수 못지않게 높아 새로운 문화시장의 가능성까지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해외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세시봉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내 청춘은 그들의 노래와 함께 추억된다"고 말할길 주저하지 않고, 세시봉을 모르는 젊은 관객들은 "깊이 있고 편안한 노래에 반할 수밖에 없다"며 감동한다.

### 30년 만의 신곡 발표

얼마 전 신곡 '울릉도는 나의 천국'을 발표한 이장희 씨는 세시봉의 이 같은 인기에 대해 "잠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세시봉을 추억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말한다.

세시봉의 인기는 그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의 손에는 다시 기타가 들렸고, 30년 만에



신곡도 발표했다. 이장희 씨는 요즘 기타 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어느새 그의 손에는 다시 굳은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그 간 잊고 지냈던 뮤지션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찾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곡 '울릉도는 나의 천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섬 울릉도에 바치는 노래다. 말하자면 이장희 씨가 부르는 울릉도 군민가인 셈이다.

'세상살이 지치고 힘들어도 / 걱정 없네 사랑하는 사람 있으니 / 비바람이 내 인생에 휘몰아쳐도 / 걱정 없네 울릉도가 내겐 있으니'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나 죽으면 울릉도로 보내 주오'로 끝을 맺는다. 흥겨운 멜로디에는 울릉도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다.

"지난해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서 울릉도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는데, 방송 이후 주민들이 저만 보면 '곡 언제 나오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게는 그 말이 채찍질이 되었어요.

미국에서부터 16년간 키우던 개를 울릉도에 묻으면서 '나도 죽으면 여기에 묻혀야지' 생각했었는데, '나 죽으면 울릉도에 보내주오'라는 가사가 떠오르자 노래는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김광민 씨가 녹음해주고 함춘호 씨가 기타연주를 해줬어요."

이장희 씨가 울릉도에 반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도 벌써 10여 년. 그는 지금도 1년의 절반을 이곳에서 보낼 정도로 울릉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 다시 음악으로 돌아와

'그건 너' '한 잔의 추억'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내 나이 육십하고 하나일 때' '나는 누구인가' 등의 히트곡으로 19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이장희 씨. 1966년 연세대에 입학한 그는 당시 통기타 문화의 산실이 된 세시봉에서 윤형주, 송창식, 김민기 등과 교류하며 작곡을 시작했다. 송창식의 '애인' '비의 나그네', 김세환의 '좋은 걸 아떡해' 등이 그의 손끝에서 나왔다. 1971년 DJ 이종환 씨의 권유로 1집 앨범 <겨울이야기>를 발표하고 가수로 데뷔해 큰 인기를 누렸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1975년 12월 2일, 바로 대마초 파동에 연루되면서 5년 만에 가수 활동을 접은 것이다. "이후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돈도 벌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작곡과 음반제작에 손을 대 사랑과 평화의 '한동안 뜸했었지'와 '장미' 등을 아내와 아들의 이름으로 작곡했습니다. 김현식의 데뷔 음반을 비롯해 김수철 김태화 등의 음반도 제작했지요."

그러다가 1980년대 초 휴연 미국으로 건너가 레스토랑을 열면서 음악과는 인연을 끊고 살았다. 하지만 음악과의 인연은 그리 쉬이 끊어질 게 아니었나 보다. 당시 가수 임병수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를 만들었고, 김완선의 '사랑의 골목길'과 '이젠 잊기로 해요'를 쓰기도 했다.

지난 2003년 미국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의 대표직을 그만두고 이듬해 울릉도에 정착하기까지 그의 삶은 굴곡의 연속이었다.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다닌 이장희 씨. 30년 만에 들고 돌아 그가 도착한 곳은 또 다시 음악이다. 오랜만에 떠나는 음악으로의 여행에 지금 그의 가슴이 뛰고 있다.

### 세시봉 투어공연 일정

- 2011. 6. 11(토) ~ 6. 12(일)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2011. 6. 17(금) ~ 6. 19(일)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11. 7. 1(금) ~ 7. 2(토) 경남 경남문화예술회관(진주문화회관)



# 합병 2년 KT, 통신을 넘어 IT컨버전스 세계를 선도할 것

이석채 회장 “클라우드 서비스 집중 육성, 비통신 영역 매출 45%까지 확대”



**KT가 이동통신사업자인 KTF와의 합병 2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다. 통신전문 그룹에서 IT컨버전스 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석채 KT 회장은 "금융 융합, 클라우드, 미디어, 글로벌 등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KT를 통신전문 그룹에서 IT컨버전스 그룹으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채 KT회장은 KTF 합병 2주년을 기념해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소회를 밝히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 IT가 끝이라고 할 때 KTF와의 합병을 비롯, KT가 주도하는 융합의 시대를 열도록 허용해주면 새 지평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켰고, 한국에도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KT는 유선시장 침체로 고심하던 2009년 KTF와의 합병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유무선 결합상품과 아이폰 도입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며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성공했다. 다양한 분야의 업체를 인수하며 31개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그룹으로 성장한 KT는 이제 비통신부분의 사업을 확대하며 IT종합그룹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업계에선 KT가 지난 2009년 6월 1일 KTF와 합병한 이후 스마트 혁명을 통해 지난해에만 3만2000개의 1인 창조기업이 탄생하는 등 합병 당시 약속한 IT산업의 재도약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이석채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KTF와의 합병 2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 세계에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나라처럼 빠른 시간 내에 앱 개발자가 늘어나고, 하드웨어 산업이 함께 크는 경우는 아마도 처음"이라며,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 인터넷 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잘 짜여진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KT는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한 그룹경영을 본격화하고 시장의 변화속도를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 통신전문 그룹에서 IT컨버전스 그룹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새로운 분야인 컨버전스, IT/미디어 서비스, 글로벌 전략으로 비통신사업의 매출 비중을 2015년에 45조원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대두되면서 진정한 '손안의 PC' 완성을 위해 컴퓨팅 능력 필수재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이석채 회장은 이어 "합병 후 KT는 스마트 시대를 열기 위한 환경 조성에 전력 주력했다"고 말한 뒤 "3W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그 위에서 데이터 통신료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종전의 가격에서 80%를 떨어트리는 과감한

“ 금융 융합, 클라우드, 미디어, 글로벌 등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KT를 통신전문 그룹에서 IT컨버전스 그룹으로 전환하겠다 ”



조치를 취함으로써 데이터 폭발 시대를 열었다"며 통신사로서는 이미 세계 최초로 세계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KT는 이와 관련,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인프라 기반의 IaaS 서비스를 시작으로 SaaS 서비스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 개발자, 글로벌 파트너들을 SaaS 플랫폼으로 통합, 글로벌 클라우드 허브 사업자로 커나간다는 전략이며, 동시에 그룹사와 연계, 관련 분야의 솔루션, 전문인력 경쟁력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룹사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파트너사와의 제휴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그룹사와 협력사가 Smart City, 클라우드, ICT솔루션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글로벌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파트너사와의 제휴협력을 추진하면서 상호 지분 투자와 함께 양사의 강점을 서로 전수 및 내재화하는 Co-Sourcing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키봇, CCC 구축 사례처럼 사업 추진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고려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도 육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그룹사와 함께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디지털 사이니지 등과 같은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신규 사업아이템을 10개 이상 확보해 추진키로 했다. KT그룹은 이를 통해 오는 2015년 IT서비스·미디어 분야 매출을 6조원으로, 금융·차량·보안 등 컨버전스 서비스는 8조원으로, 글로벌 매출은 4조원으로 성장시키는 등 비통신 분야의 매출을 2.5배 성장시켜 통신분야 22조원을 합쳐 2015년에 그룹매출 4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KT그룹은 그룹경영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해 그룹내 회사의 유형에 따라 성장원칙을 정립하고 책임경영체계를 강화키로 했으며, 동반성장의 혜택이 2차 협력사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석채 회장은 "앞으로는 통신 시장이 급변하는 속도와 KT 그룹이 변화하는 속도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아주 오래된 공기업 문화부터 혁신하기 위해 창의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노사 문화 또한 새로이 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급제를 폐지하고 직책경영제를 도입한다던가, 구매 및 협력사 관계를 효율성 위주로 재편성 하는 것, 그리고 종전의 대한민국 기업들이 IT시스템을 도입할 때 낭비해왔던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의 노력이다.

KT는 연구개발 능력을 계속 확충해서 융합시대를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을 혁신의 주역으로 탈바꿈 시키고 따라서 KT가 꿈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일터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이석채 회장은 마지막으로 "KT가 혁신을 통해서 스마트 혁명을 이뤄낸 것과 같이 KT 그룹사 전체가 또 한 번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컨버전스 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강한 연대의 힘으로 조합원의 고용과 복지 향상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KT 그룹노조)는 각 단사 노동조합 별로 2011년 상반기부터 조직안정화 및 조합활동 강화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공통적으로 노동조합 정책이나 사업방향은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고, 개정된 노동법과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합원 단결과 조직강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에 KT그룹노조는 2011년 모든 그룹사 조합원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고 강한 연대의 힘으로 고용과 복지를 지켜내고자, KT그룹노조를 구심점으로 조합원들의 고용과 복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마련하고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KT텔레캅노동조합

KT텔레캅노동조합(박정수 위원장)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2011년 핵심 전략과제로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노동조합으로 발전 ▲회사 경영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 ▲조합원 권익향상 및 복지후생 증진 ▲현장 근로조건 획기적 개선 ▲현실적인 임금인상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현장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힘차게 결의했다.



KT텔레캅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 ◎ KT링크스노동조합

KT링크스노동조합(이삼재 위원장)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조합 정책방향을 ▲보편적 의무정책 관철을 위한 조합역량 배치 ▲고용안정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소통하고 신뢰받는 집행부 건설을 기치로 정하고, 부문별 사업을 ▲고용안정을 위한 이용대가 적정확보 ▲KT그룹경영에 따른 KT그룹노조협의회 연대강화 ▲대외활동 강화를 통한 공중전화시설 감축저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합동위원회 운영 ▲수익사업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명예퇴직금 현실화/전직훈련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KT링크스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 ◎ KT렌탈노동조합

KT렌탈노동조합(류경오 위원장)은 올해 기존 3사의 조직통합을 위해 달릴 것을 천명하고, 지난 4월 대의원대회에서 ▲2011년 임금협상 승리 ▲휴일근무 및 대체휴일제도 개선 ▲주택자금 대출기준 및 재원마련 ▲퇴직연금제도 도입 ▲장기근속자 포상 프로그램 ▲출신사별 정년제 통합 ▲학위취득 지원 ▲지점 및 영업소 현장사무실 환경개선 ▲비오토 조합원 흡수 ▲KT그룹노조 연대활동 강화 등을 결의했다.



KT렌탈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 ◎ KT테크노동조합

KT테크노동조합(안호경 위원장)은 지난 4월 대의원대회에서 모두 함께 참여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슬로건으로 ▲KT 그룹노조 연대활동 강화 ▲조합원 고충처리 및 상집간부 협력강화 ▲신규조합원 가입사업 확대 및 조직강화 ▲조합원 소양교육 및 조합 SNS 신설 및 관리 ▲조합소식 전달용 LCD설치 등을 통해 2011년 노사협의 및 임금협상과 특별 단체협약을 위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KT파워텔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 ◎ KT파워텔노동조합

KT파워텔노동조합(정재진 위원장)은 지난 3월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집행부를 구성하고, 5월에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11년 사업계획을 의결했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임금협약을 위해 조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조합원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 복수노조, 노동조합운동 지혜가 필요한 시대



개정 노조법은 노동조합들 사이의 권리를 비대칭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들은 노동3권의 온전한 행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의 제한으로 인해 노동조합 존립근거를 상실할 것인가라는 즉, 노동조합들의 생존을 건 서바이벌 경쟁관계를 만들어 버렸다.

과거 한국 노동법제의 가장 후진적인 요소로 지목받아 왔던 자유로운 노동자 결사의 제한 즉, 복수노조 금지제도는 2010. 1. 1. 노조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아울러 오는 2011. 7. 1.을 시점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자유설립제는 비로소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자유설립제도는 총량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확산시켜 조합원수 증가 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지만, 아직 그와 같은 방향이 한국의 노동조합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누구는 일부 무노조 기업이나 비민주적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올바른 노동조합 조직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복수노조 설립을 환영하는가 하면,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면서 사용자의 노동조합 2중화 전략에 말려들게 되어 노동조합활동 전반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의 조직형태와 조직화 동인, 활동방식 등이 다양한 관계로, 최소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내부사정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운동 전체적으로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은 그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분명 그 자체가 체제변경(Regime change)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혼돈상황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을 건강한 발전으로 이끌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운동의 쇠

락으로 이끌 것인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의 노조법은 온전한 의미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교섭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가 오랫동안 벌여온 복수노조금지조항의 폐지활동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가로막는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활동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적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포함하여 노동3권의 자유로운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3권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설립에 대한 단결권만 보장받고 그 밖에 교섭권과 행동권은 보장받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에 관한 권리 즉, 단결권의 보장을 확대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 삼아 그 밖의 권리 즉,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제한이 가해지도록 하였다. 창구단일화 환경에서 조합원 과반수를 장악하는 노동조합만이 교섭권과 쟁의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고 그 밖의 노동조합은 교섭권과 쟁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들만 있는 경우에도 법률은 최대노동조합이 체결권과 쟁의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노동3권 행사의 자유를 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의 순으로 순위화 해 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 노조법은, 노동조합들 사이의 권리를 비대칭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들은 노동3권의 온전한 행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연대와 단결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개별 노동조합을 넘어 전체 노동조합운동에게 확산시키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노조법이 필연적으로 노동조합들 간의 분열과 경쟁을 촉발시키는 제도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주체의 의지로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조합 전체적인 의식고양이 필요하다.

존립근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의 제한으로 인해 노동조합 존립근거를 상실할 것인가라는 즉, 노동조합들의 생존을 건 서바이벌 경쟁판계를 만들어 버렸다.

한편, 노동조합 활동환경의 변화는 노동조합의 노사관계학적인 지위 변화를 동반한다. 과거 1사 1노조 체제하에서의 노동조합은 하나의 기업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장 단위 근로자대표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이를 토대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은 물론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런 상황에서의 노동조합은 내부적 이견을 조율하고 각 세력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민주적의 사결정제도와 높은 도덕률을 근거로 조직을 운영·통제하였다.

그러나 복수노조환경 하에서의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비동질성을 개념으로 하여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전체 사업장 내에서 기존에 부여받았던 근로자대표체로서의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대표체(단일창구의 대표교섭노조, 요건으로는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수 과반수 가입)가 될 것인가 여부를 검증받는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한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이를 제단계로 하는 검증단계를 마친 다음에서야 전체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증받는 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정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복수노조 환경 하에서의 각각의 노동조합은 이전에 비해 내부적 통합력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그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

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될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어느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자 동시에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조합이 소수이라도 조직되어 있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은 마땅히 전체근로자를 대표한다는 개념이 폐지된 이상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의 근로자를 조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견을 가진 다른 노동조합이나 비조합원인 노동자들을 당연히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노동조합은 여전히 다수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일 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로부터 선거나 투표와 같은 어떠한 유형의 민주적 수권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아가 위와 같이 과반수가 모두를 대표한다는 단순논리는 근로조건을 자주결정의 원칙과도 대립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복수노조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노동조합들에게 조합 간 경쟁과 대표성 상실이라는 부담을 지운다. 따라서 당연히 노동조합에게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상황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첫째, 연대와 단결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개별 노동조합을 넘어 전체 노동조합운동에 확산시키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노조법이 필연적으로 노동조합들 간의 분열과 경쟁을 촉발시키는 제도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주체의 의지로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



조합 전체적인 의식고양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조합들 간의 출혈적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최상위 단위에서 일종의 협약이 필요하다. 지난 1930년대 이후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조직화 경쟁을 버렸던 미국의 양대노총 즉, AFL(American Federation of Labor)와 CIO(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는 1953년 상호간의 불가침협정(No-Raiding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조직화에 들어가는 출혈적 경쟁을 지양하고, 각 노동조합들의 관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겠지만 위와 같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서 극단의 경쟁으로 말미암은 공동동망의 결과로 나가지 않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대표교섭노동조합의 전횡으로 인해 무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복수노조 시대가 노동조합운동 전체의 분열과 반목의 시대가 아닌 자유로운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권 부흥의 시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법률사무소 참터 김철희 노무사



# 제12회 연합회장기 쟁탈 KT그룹 전국야구대회 패기, 화합, 반전의 드라마

연합회장기 쟁탈 KT그룹 전국야구대회가 지난 4월 23일 토요일부터 1박2일간 충북 청원군 오창야구장 등 5개 보조구장에서 막을 올렸다. 2000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KT야구연합회에 등록된 사원들로 구성된 전국 18개 팀과 가족, 임원 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T 야구인들의 화합의 한마당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시구 : 윤오원 사무차장

## ‘대구 001’ 야구단, 2연패의 쾌거!

오전 10시, 청주 밀레니엄야구장에서 진행된 개막식 행사는 개최지인 충북 김성일 단장의 개회사와 함께 축제의 막을 올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KT노동조합 윤오원 사무차장과 정지국(충북지방본부)위원장, 김신(본사지방본부)위원장, 조중오(충남지방본부)위원장이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전날 우천으로 인해 불투명한 개최여부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예정대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KT노동조합 윤오원 사무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연합회장기 쟁탈 KT전국야구대회의 개최를 축하한다. 조합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야구 동호회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KT 노동조합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두를 격려했다. 윤오원 사무차장과 임홍순 고문 등 임원들은 이어 힘찬 시구와 함께 본격적인 경기의 시작을 알리며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각 지역에서 참가한 18개 각 팀들은 직장 근무시간 외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모두가 우승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경



기를 보였다. 경기는 대진표에 따라 팀별 리그전으로 진행된 가운데 23일(토)에는 예선전, 24일(일)에는 패자 준결승전과 결승4강전이 펼쳐졌다. 경기 시작부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이번 대회의 최종 승자는 작년도 우승팀인 ‘대구 001’ 야구단이 2회 연속으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의 우승을 목표로 지난겨울부터 땀흘려온 ‘대구 001’ 야구단은 탄탄한 조직력과 30년이라는 지역 리그의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펼친 결과 최상의 경기력을 자랑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르며 결승전에서 ‘대구 001’과 맞붙은 ‘경남 메가패스’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 끝에 7회에 결승타 한방으로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다. 또 하나의 강호 ‘KT텔레캅’ 팀은 ‘경남 메가패스’ 팀과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고, 패기를 선보였던 ‘충북 사이버스’와, 대전 팀은 각각 공동3위를 차지하며 다음 대회의 우승을 내다보게 했다.

## KT야구 12년의 역사, 우리는 한가족

이번 대회에는 또한 ‘전북 메가패스’ 야구단이 다크호스로 떠올라, 창단 12년 만에 감격적인 첫 승으로 4강에 올랐다. 지금까지 대회에서 첫 경기에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했던 암울함을 뒤로하고 승리의 기쁨을 맞이한 전북 팀은, 현재 혈혈암으로 투병 중인 유성식 감독에게 작은 기쁨이 되고자하는 마음들이 뭉친 결과, 경기에서 2승을 거두며 4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박2일 간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폐회식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행운권 추첨으로 쌀, 생필품, 학용품 등 푸짐한 경품들이 제공됐고, 허은 연합총무

는 폐회사를 통해 “다들 고생 많았다. 연말에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13회 개최지를 선정한다. 앞으로는 더젊은 동호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젊음과 파이팅이 넘치는 내년을 기약했다. 한편, 23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열린 야구인의 밤 행사에는 운영진과 야구인, 그리고 가족들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임홍순 고문은 이 자리에서 12회를 맞이하는 야구대회의 역사와 발자취를 돌아보며 KT야구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약속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각 팀들은 소개와 함께 지역별 특산주를 준비하는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이어갔고, 장기지랑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나눔과 화합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날 모인 야구인 모두는 현재 혈혈암 투병중인 전북 유성식 감독의 쾌유를 위해 각 팀별 자율로 성금을 모금하자는 의견에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회의 우승팀과 준우승팀은 상금 전액을 기탁하는 등, 이날 모인 성금 250만원을 지난 5월 12일 임홍순 고문과 김도형 총무가 서울대병원을 방문, 유성식 감독에게 직접 전달해 쾌유를 기원하며 야구로 다져진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겼다.





# 함께 뛰고 함께 꿈꾸는 즐거운 수도권 '2011년 한마음 체육대회'

지역 단위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도권 무선네트워크운동단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도권총 18개 거점, 34개 팀, 587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화합을 도모하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날려 버리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모두가 선수되는 체육대회의 신문화

4월 20일(수) 오전, 과천 관민체육공원, 화창한 날씨 속에 삼삼오오 몰려든 직원들로 운동장은 금세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수도권의 '클라우드커뮤니케이션센터(CCC)' 구축으로 인해 힘들었던 심신을 해소하며 재충전을 다짐하는 취지가 더해져 의미를 지녔다.

권태일 수도권 단장을 비롯, 박철성(강북), 허정식(강남), 윤웅현(강서), 최희동(강원) 지부장과 집행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힘찬 팡파레로 개회가 선언됐다. 권태일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밤낮없이 일하느라 수고가 많다. 단위조직들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라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이어 박철성 지부장은 지부장을 대표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승패를 떠나 파이팅하며 특히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춘 몸풀기로 시작된 행사는 전문MC의 진행 아래 치어

리더 공연까지 더해져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번 대회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랑운동회였다. 경기는 '명품 강남지부', '선봉 강서지부', '최강 강북지부', '화합 강원지부'의 4팀으로 구성된 가운데 '파도 넘기', '통천 릴레이', '지네발 릴레이', '깃발뽑기' 등 흥미진진한 경기로 진행됐다.

## 족구는 강북! 축구는 무승부! 계주는 강북엑세스망팀 우승!

점심식사 후 진행된 오후 행사는 직원들의 흥겨운 댄스와 훌라후프 돌리기로 시작했다. 이어진 'OX 퀴즈'에서는 아리송하고 유쾌한 상식과 난센스 퀴즈로 6명이 상품을 차지하는 행운을 누렸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시작된 '집단축구'는 총 40명이 4개의 공으로 좌충우돌 경기장을 누비면서, 승패를 떠나 경기 자체의 재미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강남과 강서, 강원과 강북으로 나뉜 두 팀은 전·후반 각 10분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를 제외한 모두가 스태ンド로 자리를 옮겨 팀을 응원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과 함께 1분도 채 안되어 선취골이 터지고, 연이어 동점골이 터지면서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강북과 강원팀이 5:2로 앞서며 승패가 쉽게 갈리는 듯 했지만 순식간에 5:3까지 따라붙으면서 전반전을 마쳤다. 휴식없이 바로 시작된 후반전은 바람을 안고 불리한 위치를 점했던 강남과 강서팀이 자리가 바뀌면서 새로운 공방전을 기대하게 했다. 강남과 강서팀의 선전으로 6:5로 역전된 경기는 종료 1분 전 무더기골이 터지면서 7:7로 동반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경기인 400m계주였다. 4명이 한 바퀴를 도는 계주는 몸뻐를 갈아입는 것으로 바통터치를 대신해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결승에 오른 가운데, 경기에 앞서 무선네트워크본부 오송목 본부장은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기 바란다. 모두 그간 고생하며 준비해왔던 CCC를 실력 발휘하자"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선수가 뒤바뀌며 긴장감 가득했던 계주 결승전은 최종 주자에서 역전되면서 1위는 '강북 액세스망팀', 2위는 '강남 자산팀', 3위는 '강남 제머망4팀'에게 돌아갔다. 계주를 끝으로 이어진 시상과 행운권 추첨에는 주방용품, 벽시계, 자전거 등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다. 권태일 단장은 "무사히 마무리해서 감사하다."며 "즐겁다!"를 함께 외치면서 폐회사를 대신했고, 전직원들은 기념촬영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추억을 남기며 다음을 기약했다.



## MINI INTERVIEW



**강북 무선네트워크지부 박철성 지부장**  
"편안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모두 오랜만에 모였죠. 소속은 같지만 거리가 멀다보니 서로 얼굴 맞대기가 힘든데, 함께 스트레스도 풀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회사와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강서 무선네트워크지부 윤웅현 지부장**  
"함께 웃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합병 이후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적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융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마음체육대회가 KT내에서도 화합을 다지는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미래 미디어!

스마트TV 혁명이 시작되었다



세상이 다시 '스마트'에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이은 '스마트' 열풍이 TV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3D 기술과 함께 스마트TV가 미디어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구글이 구글TV를 출시하며 스마트TV 시장에 진출했고 스마트 열풍을 주도했던 애플도 애플TV를 출시했다. 여기에 기존의 전통 가전업체들도 긴장 속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잠재적 경쟁자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래 미디어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스마트TV. 스마트TV는 과연 무엇이고 TV가 '스마트' 해지면서 일상생활에 몰고 올 '스마트' 한 변화는 어떤 것일까?

# SMART TV

##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담은 미래형 TV

디지털TV, IPTV, 3DTV, 그리고 스마트TV까지. 바야흐로 첨단TV 홍수 시대다. 스마트TV는 단순히 인터넷이 되고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TV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이다. IPTV와 디지털케이블TV가 이미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도 인터넷TV(혹은 커넥티드TV)를 출시한바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TV 만이 가능하게 한 일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스마트TV는 자유로운 홈네트워킹(DLNA -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기능을 이용해 휴대폰, PC 등 다양한 가전 기기와 연계할 수 있다. 개개인의 사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가전 기기 간의 콘텐츠 경계가 사라지면서 점점 스마트해지는 TV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스마트TV는 TV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원하는 대로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있다. 자유롭게 소셜네트워크(SNS)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다.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삭제가 자유롭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즉 스마트TV는 'TV 수상기'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길 콘텐츠의 연관성까지 함께 고려된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스마트폰이 손안에 한정된 공간을 활용해 개인화된 미디어 역할을 했다면, 스마트TV는 그 무대를 집안 거실로 옮겨 온 것. 스마트TV는 대형 화면으로 온 가족이 소통하는 미디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 스마트TV가 제공하는 스마트한 일상

스마트TV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확장 능력이다. 즉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아버지라면 출근 전에 신문을 보거나 현재 교통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어머니는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고 각종 동영상과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아이들 교육에도 효과적이다.

이제 스마트TV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가전제품의 새로운 혁신이 되었다. 기존의 TV가 영상만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다. 이전에는 상상 할 수 없었던 홈 엔터테인먼트 생활이 스마트TV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

## 차별화된 콘텐츠로 스마트폰 못지않은 파급력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스마트TV 역시 미디어 전 분야를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 출판, 방송 등의 미디어 산업을 비롯해 음악과 영화 등의 콘텐츠 산업, 그리고 교육, 의료, 금융, 쇼핑, 광고 등으로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 될 것이다.

## ■ 앱스토어

앱스토어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콘텐츠 소비의 행태를 바꾼 위대한 발명품 앱스토어의 진화가 스마트TV의 성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아이패드의 콘텐츠로 개발되고 있는 고급

콘텐츠들은 스마트TV의 콘텐츠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즉, 아이패드나 스마트TV를 위한 콘텐츠를 미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소스가 될 수 있다.

### ■ 음악

스마트TV는 음악과 영상을 함께 소비하는 콘텐츠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켜줄 고급 음악 콘텐츠의 등장을 이끌어 냈다. '박시툰즈(Boxytunes)'라는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 스마트TV를 통해 친구가 듣는 음악이 나에게 통보 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음악 소비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 ■ 영화

현재 TV를 통해 유통되는 중요한 콘텐츠는 방송과 영화다. 앱스토어를 통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매 하듯이, 방송과 영화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오픈 영상스토어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온라인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는 앞으로 스마트TV의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PC의 편리성에 TV의 최적화된 동영상 재생 기능이 더해진 스마트TV는 영화나 드라마 등 고품질의 콘텐츠를 즐기기에 최고의 미디어 기기다. 다운로드 된 영화가 스마트TV와 스마트폰, 그리고 PC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 ■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Wii' 처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정용 콘솔 게임기가 인기다. TV의 대형화면에 연결해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정용 게임기가 스마트TV용 게임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성패는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다. 자연스럽게 스마트TV를 위한 다양한 게임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가정에서는 고가의 가정용 콘솔 게임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스마트TV용 게임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 교육

이미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통해 다양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아이패드 등 태블릿PC의 직관적이고 손쉬운 사용법은 유아에서 노년층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장 손쉽게 접하는 TV를 통해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면 남녀노소를 위한 유명 강의나 학습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터넷이 만든 미디어의 발달과 TV가 지닌 풍부하고 직관적인 고급 콘텐츠의 만남은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열어 줄 것이다. '웹'에서 '앱'으로의 패

스마트TV가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화 등의 콘텐츠 산업과 교육, 의료, 금융, 쇼핑, 광고 등 연관 비즈니스 영역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장악할 날이 멀지 않았다. 조용히 지켜볼 것인가, 빠르게 동참할 것인가. 이제 남은 건 소비자의 선택이다.



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 인터넷은 TV와의 만남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냈다.

### 스마트TV 이용하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스마트TV의 각종 기능을 경험하고 싶지만 기존 TV를 교체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한 실속형 제품도 등장했다. 일반TV에서도 스마트TV 기능을 즐길 수 있는 보조기기다.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TV 기능을 탑재한 콤팩트 스마트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출시했다. 스마트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도 이 제품만 있으면 스마트허브를 통해 방송 다시보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다. '올셰어', '스마트 검색(서치올)'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LG

전자 역시 '스마트TV 업그레이더'를 올 하반기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TV와 연결해 사용하는 일종의 셋톱박스다.

스마트 TV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모아둔 미래 TV의 모델인 것처럼 보인다. 스마트폰 이후에 스마트TV가 미래 미디어의 중추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스마트TV가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화 등의 콘텐츠 산업과 교육, 의료, 금융, 쇼핑, 광고 등 연관 비즈니스 영역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장악할 날이 멀지 않았다. 조용히 지켜볼 것인가, 빠르게 동참할 것인가. 이제 남은 건 소비자의 선택이다.

# ‘사람냄새’ 그윽한 그들을 만났다! 정직+우직+의리=강원지방본부

강원지방본부



강원도를 떠올리면 언제나 기분이 좋다. 산은 높고 푸르며, 물은 맑고 시원하니 아니 좋을 수가 있을까. 사람 또한 발 딛고 선 땅을 닦는 법. 지나는 길손에게 물 한 잔이라도 건네는 인심이 여전히 살아 있는 곳이 강원도다. 강원지방본부의 사람들도 그렇다.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일구는 조직은 그렇게 가족처럼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냄새’를 피워 올린다. 우직하면 서도 의리와 정으로 뭉친 850명의 대가족, 바로 강원지방본부이다.

### 정직한 사람들이 일군 조직

이른 아침, 원주에 자리한 강원지방본부 사무실에 들어서니 심우승 위원장이 시원한 웃음으로 먼저 인사를 건넨다. 전형집 조직국장, 박재호 사무국장, 안상진 교육홍보국장, 오광세 쟁의국장, 김창일 복지후생국장, 박호림 조사통계국장, 박영희 여성국장도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사뭇 진지하다가도 어느새 서로 어깃장을 놓고, 농을

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오래간만에 일가친척들이 모인 듯 가족적인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모습이다. 강원도는 북쪽으로는 최척방 고성·양구·인제·철원·화천이 자리하고 있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 속초·양양·강릉·동해를 거쳐 삼척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내륙의 춘천·홍천·원주·평창·정선·태백·영월·횡성 등을 합친 강원도의 면적은 약 17만km<sup>2</sup>. 동서로는 약 150km, 남북으로는 약 243km에 달하는 드넓은 곳이다. 전 조직국장은 “면적은 넓은 반면에 조합원은 850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백두대간이 가로지르며 험준한 산들로 가로막혀 있으니 지부장들이 조직을 관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원지방본부 특유의 가족적인 분위기는 먼 거리도, 높은 산도 문제될 것이 없다. 조금은 촌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정이 넘치는 강원도 사람들만의 결집력 덕분이다.

이러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낸 것은 지역적 특성에서도 기인하지만, ‘현장’ 과 ‘정직’ 을 중시하는 심우승 위원장의 조직 철학도 큰 역할을 한다. 강원지방본부 10대 집행부의 슬로건이 ‘정직’ 일 만큼 조합원들에게 거지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지난해까지 조합 전용 자동차의 운행 거리가 12만km가 넘을 만큼 조합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심 위원장은 “강원지방본부에서 조합 간부를 하려면 현장에서 일도 잘하고 도덕적으로도 깔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직해야 하고 현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조합원이 진정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 1. 김창일 복지후생국장
- 2. 박재호 사무국장
- 3. 오광세 쟁의국장
- 4. 전형집 조직국장
- 5. 박영희 여성국장
- 6. 심우승 위원장
- 7. 박호림 조사통계국장
- 8. 안상진 교육홍보국장





**‘사람중심’의 활동에 방점을 찍다**

강원지방본부의 지난 활동들을 살펴보면 다분히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조합원들의 애경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조합원 자녀에게 격려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노후 사택의 벽지와 장판을 새롭게 정비해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시킨 것 등 작은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정성이 엿보인다.

이외에도 여러 사업이 조합원들의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5~6월에는 강원도 내의 병원 및 정례식장과 할인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원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 홍천의 정례식장(9곳)을 이용할 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시설사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원주의 의료원(2곳)과도 협정을 맺어 10~30%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에는 자동차 보험을 대행하는 인수코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총 보험료의 10% 감면,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신차 구입 시 혜택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조합원들에게 주어졌다. 또 강원랜드 노동조합과 MOU를 체결해 조합원들의 영업에도 힘을 보탤다. 심 위원장은 “통신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매출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합간

부들과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지방본부는 10대 집행부의 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시점, 남은 기간 동안에도 현장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란다.

심 위원장은 “‘현장이 답이다.’ 라는 신념으로 강원도 산골짜기 곳곳을 누비며 조합원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것입니다. 중앙본부와 지부 및 현장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10대 집행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활동의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 만들기의 선봉장

강원지방본부심우승 위원장은 결벽증(?)이 있다. 심 위원장 스스로에게 그리고 조합 간부들에게 ‘정직’을 강조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그가 강원지방본부 10대 집행부를 출범시키며 내세운 슬로건도 바로 ‘정직’. 한 단어였다. 말 한 마디 한 마디마다 힘을 실어 내뿜는 어투에서도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에 대한 강한 신념이 묻어나오는 것만 같았다.

1990년 4월 입사한 심 위원장은 때마다 꼬박꼬박 승진을 할 만큼 현장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다. 하지만 당시 지부조합 활동의 모습에는 적잖이 실망을 했다. “그때 지부 조합 활동을 지켜보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노동조합은 물론 회사를 위해서도 정직하고 깨끗한 조합을 만들고 싶었죠. 2005년 12월 홍천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본격적인 조합 활동을 시작했어요. 홍천 만큼은 한 식구처럼 화목한 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2008년 12월 강원지방본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을 때도 그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다. 정직은 곧 상호 간의 신뢰로 연결되고, 그렇게 얻어진 신뢰는 조합 활동의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 위원장이 정직과 함께 중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장’과 ‘사람’이다.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들과 식사를 할 때 위원장과 밥을 먹는 게 처음이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걸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심 위원장은 현장을 향해 부단히 발품을 팔았다. 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현장 방문 후에 받았던 한 통의 전화란다.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가끔 전화를 주시는 조합원들이 있어요. 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과 희망을 보았다고 말씀해주실 때면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뿌듯하죠.”

심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눈이 무섭다. 그 눈은 심 위원장 스스로의 날카로운 눈초리라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때문에 그의 정직과 현장에 대한 ‘결벽증’은 강원지방본부를 이끌어 가는 긍정의 힘이 아닐까

# 서로의 마음을 향해 안테나를 바짝 세우다!

금산위성센터지부



거대한 안테나들이 하늘을 향해 있는 금산위성센터. 그 안테나들은 지금도 귀를 쫓긋 세우고 세계 곳곳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고 있으리라. 이곳에서 만난 금산위성센터지부의 조합원들도 이 안테나를 꼭 닮아 있었다. 다만 그들의 고성능 안테나가 향해 있는 곳은 바로 서로의 마음. 오랜 세월 함께 일해 오면서도 동료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과 배려가 그칠 줄 모르는 이유이다.

### 이 거대한 안테나, 기억하세요?

인상받이 곳곳에 자리한 널따란 평야를 가로지르다 보니 거대한 안테나 20여 기가 파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어보니 초등학교 시절 사회교과서에서 봤던 바로 그 안테나였다. 1970년 6월 2일, 직경 27m에 이르는 원형 안테나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지구국인 금산위성통신 제1지구국이 문을 열었다.

당시 개통식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정부 요인들이 참석할 만큼 국가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안테나는 등록문화재 제436호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귀중한 국가재산에 다름 아니다.

금산위성센터는 지금도 국가 보안 1급 시설로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정문에 갈지자로 놓여 있는 바리케이드와 센터 주위를 두르고 있는 철조망에 괜한 긴장감마저 감돈다. 하지만 최전방 군부대에라도 들어온 것 같은 딱딱한 분위기는 지부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봄벌레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푸근한 인상의 박정서 지부장을 비롯해 윤종남 조직부장, 한을섭 쟁의부장, 어성용 조사통계부장, 김선범 교육홍보부장, 신성동 여성부장이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기 때문이다.

박정호 사무부장과 안상일 복지후생부장을 만날 수 없어 아쉬웠지만 박중



- 1. 윤종남 조직부장
- 2. 박중민 복지후생부장 대행
- 3. 김선범 교육홍보부장
- 4. 박정서 지부장
- 5. 한을섭 쟁의부장
- 6. 신성동 여성부장
- 7. 어성용 조사통계부장



민 조합원이 자리를 함께해 이야기를 나눴다. 금산위성센터는 태평양 위성, 인도양 위성 등 국제위성을 이용해 국제전화, 국제 위성 TV 중계, 선박 해상통신, 국제위성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위성서비스팀, 위성전송팀, 인말샤프트서비스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명의 조합원이 20여 기의 초대형 안테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서 “금산위성센터의 위성서비스팀으로 통합된 충북 보은군의 위성지구국을 포함해 시설과 규모면에서 아시아 제1의 국제위성지구국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위성통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낯선 전문용어들이 줄을 잇는다.

윤 조직부장은 “금산위성센터는 국제위성 전용서비스(VSAT)를 이용해 원양어선 같은 선박이나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해외 건설현장과 육지를 연결하고 있다.”면서 “26개 해외 대사관을 비롯해 아이티,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파병 부대, 대우건설 등의 기업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성을 통해 세계 각지의 이벤트 방송이나 주요 외신 보도를 국내 각 방송사에 전송하는 국제위성방송서비스, 올레 IPTV 해외채널 수신 서비스 등도 금산위성센터의 주요 업무이다.

우리가 거실에서 편안하게 박지성 선수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거나 CNN과 NHK 같은 세계 각국의 뉴스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이 금산위성센터지부의 조합원 덕분인 셈이다.

### 15년 이상 베테랑들의 집합소

이러한 업무의 특수성은 금산위성센터지부 조합원들을 모두 베테랑 전문가로 키워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게는 15년, 많게는 30년 넘게 위성통신 서비스에 젊음을 바친 것이다.

박 지부장은 “장비도 특수하고 영어도 필요해서 1년을 근무한다고 해도 마스터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15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들이 많은 편이죠.”라고 말했으며, 김 교육홍보부장은 “3개 팀에 불과하지만 옆 팀으로 가면 업무가 완전히 달라서 최소 3년 이상은 근무해야 숙련될 정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오랜 동안 함께 근무해오고 있지만 서로 얼굴을 맞댈 시간은 많지 않다. 세계 각국과 교류하며 업무를 해야 하니 시차 탓에 밤낮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낮 근무시간에 얼굴을 볼 수 있는 인원이 반도 되지 않는단다. 한 정의부장은 “초창기 한두 기에 불과했던 안테나가 지금은 20여 기로 늘어난 반면, 150명에 가깝던 인원은 32명으로 줄어 들었다.”며 “인원은 적고 교대근무가 많다보니 조합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전송업무와는 달리 위성 데이터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

에 수시로 세팅 값을 변경하고 전화 업무까지 봐야 하니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녹초가 되기 일쑤다.

고된 업무 속에서도 조합원들을 버티게 하는 것은 금산위성센터 지부의 훈훈한 분위기이다.

신 여성부장은 “다른 지부도 그럴 것지만 특히 금산위성센터지부는

15년 넘게 함께 생활한 조합원들이 많아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등 유대감이 남다르다.”며 “사생활이 없는 것이 단점일 정도로 가족처럼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보듬어주고 있다.”고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이야기를 마치고 금산위성센터를 빠져나오는데 파란 하늘을 향해 있는 거대한 안테나들이 마치 한 명 한 명의 조합원들처럼 느껴졌다.

귀를 쫓긋 세우고 상대방이 보내오는 신호를 섬세하게 받아들이는 안테나처럼 그들도 서로 긴밀하게 교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Interview \_ 금산위성센터지부 박정서 지부장

##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가 제 꿈이죠!”

박정서 지부장은 금산위성센터지부에서 가장 커다란 안테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4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세계 곳곳과 송수신해온 직경 27m의 안테나처럼 그는 금산위성센터지부의 든든한 만형과도 같다. 오랜 연륜으로 조합원들의 고충을 미리 헤아리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조합원들의 밝은 표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1976년에 입사한 박 지부장은 1년 정도 근무하다가 3년여의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했다. 지금의 대전네트워크서비스센터에 해당하는 곳에서 2년여를 근무하고 금산위성센터지부로 온 것이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간다. “2009년에 지부장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조합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임금인상 등 굵직한 문제들에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은 우리 동료들이 보다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줄어든 인원에 교대근무로 한 자리에 모이기도 어려워니 팀별로 또는 개인별로 직접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동료들의 마음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듣고 뭔가 직장에서도 재미난 ‘이벤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2009년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었고, 올해 초에는 족구장을 개설했어요. 야간 근무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팀별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야구장 응원가기 등 작지만 다양한 이벤트들을 열어 조합원들의 사기를 북돋고자 했죠. 올해에는 ‘작은 운동회’ 같은 행사도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 못 갔던 지부수련회도 올해는 꼭 갈 계획이에요.”

국제위성통신이라는 특수한 업무 때문에 팀별 이동이나 전입·전출 등의 문제도 박 지부장이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이다. “우리 지부는 업무 특성상 적응이 그리 쉽지 않아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영어능력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숙련자가 타 기관으로 가버리면 그 공백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 이유이죠. 회사 정책상 직원들을 로테이션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저희 지부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지부장은 10대 집행부 출범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그렇게 목이 메일 수가 없었던단다. 앞서 간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 노레가사처럼 비장한 것은 아니지만 박 지부장은 오늘도 조합원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가는 32명의 힘찬 행진 말이다.





## 원주와 금산에서의 맛집 순례기 두루치기 vs 짬뽕 vs 어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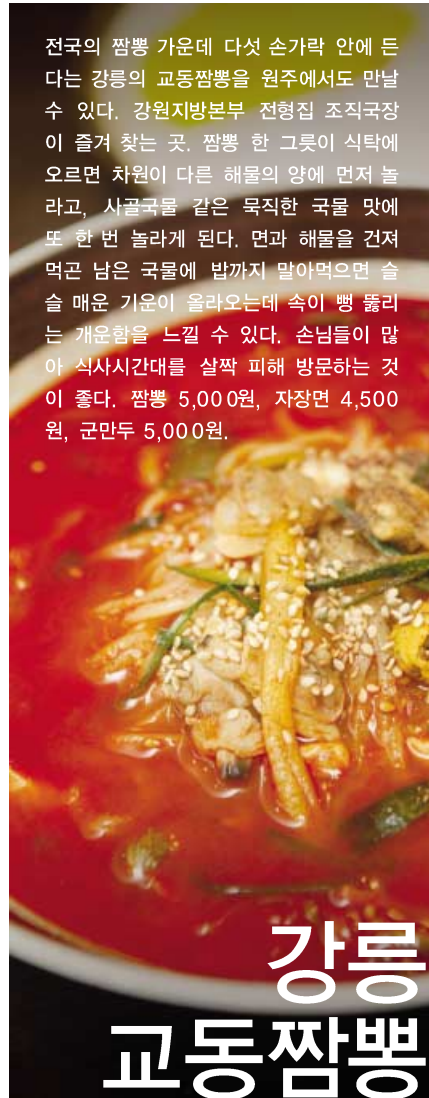
강원지방본부 심우승 위원장의 단골집인 고인들은 두루치기로 유명한 곳이다. 도시의 어느 뒷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음식점이지만 그 맛은 웅숭깊다. 이곳의 두루치기는 비계가 두툼한 돼지고기에 목은지와 송이버섯 등을 넣고 걸쭉하게 끓여낸 것으로 다른 밀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이 게 눈 감추듯 사라진다. 삼겹살도 유명하다. 특히 고기를 다 먹고 난 후 무생채, 김치, 콩나물 등을 넣고 밥을 볶아주는데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두루치기는 1인분에 6,000원, 삼겹살은 9,000원.



**고인돌  
두루치기**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203-9  
문의 | 033-742-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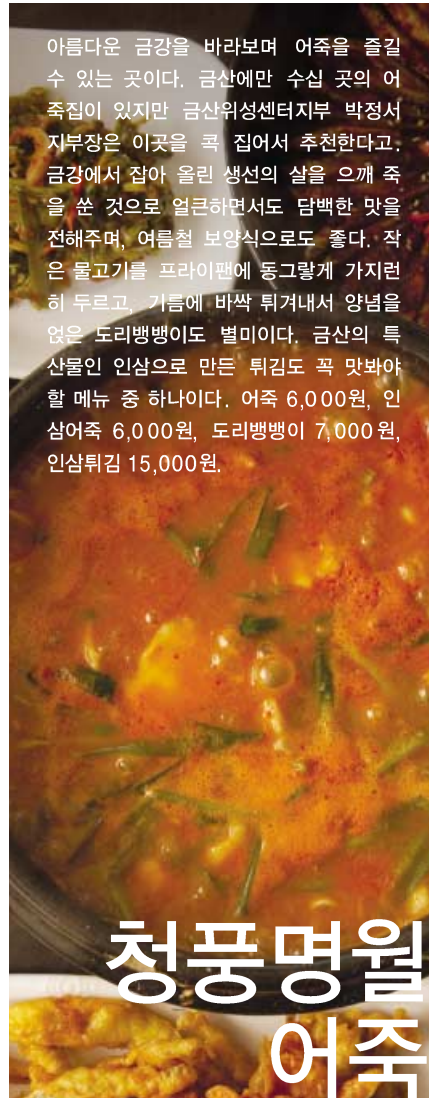
전국의 짬뽕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강릉의 교동짬뽕을 원주에서도 만날 수 있다. 강원지방본부 전형집 조직국장이 즐겨 찾는 곳. 짬뽕 한 그릇이 식탁에 오르면 차원이 다른 해물의 양에 먼저 놀라고, 사골국물 같은 묵직한 국물 맛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면과 해물을 건져 먹곤 남은 국물에 밥까지 말아먹으면 슬슬 매운 기운이 올라오는데 속이 땀 뚫리는 개운함을 느낄 수 있다. 손님들이 많아 식사시간대를 살짝 피해 방문하는 것이 좋다. 짬뽕 5,000원, 자장면 4,500원, 군만두 5,000원.



**강릉  
교동짬뽕**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08-7  
문의 | 033-743-5802

아름다운 금강을 바라보며 어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금산에만 수십 곳의 어죽집이 있지만 금산위성센터지부 박정서 지부장은 이곳을 꼭 집어서 추천한다고. 금강에서 잡아 올린 생선의 살을 으깨 죽을 쑀 것으로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전해주며,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좋다. 작은 물고기를 프라이팬에 동그랗게 가지런히 두르고, 기름에 바삭 튀겨내서 양념을 얹은 도리뱅뱅이도 별미이다. 금산의 특산물인 인삼으로 만든 튀김도 꼭 맛봐야 할 메뉴 중 하나이다. 어죽 6,000원, 인삼어죽 6,000원, 도리뱅뱅이 7,000원, 인삼튀김 15,000원.



**청풍명월  
어죽**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244  
문의 | 041-752-1920

## 700명의 호국영령이여 편안히 잠드소서!



700명의 호국영령들을 모신 '칠백의총'

금산 그 산세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비단 금(錦)자에 뫼 산(山)자를 썼을까. 충남 금산은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이 뻗어나가며 일으켜 세운 서대산, 천태산, 대둔산, 마이산, 적상산 등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분지이다.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봐도 비단처럼 아름다운 산들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으니 금산이란 이름이 무색하지 않다. 여기에 전북 장수, 진안, 무주 등지에서 발원하는 금강이 가로지르며 기암절벽을 조각해내니 그 풍경 또한 수려하고 그윽하다.

특히 부리면의 '적벽강'과 남이면의 '12폭포'가 금산의 절경으로 꼽힌다. 금강의 맑은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며 오랜 세월 깎고 또 깎아낸 층암절벽이 우뚝한 적벽강은 한 폭의 산수화와도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높이 30m의 웅장한 모습도 볼거리지만, 바위산이 붉은 빛깔을 띠고 있어 더욱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계곡물이 12개의 폭포를 이루는 12폭포도 장관이다. 가장 큰 폭포는 높이가 20m에 달하고, 산길을 따라 산책을 즐기며 크고 작은 폭포를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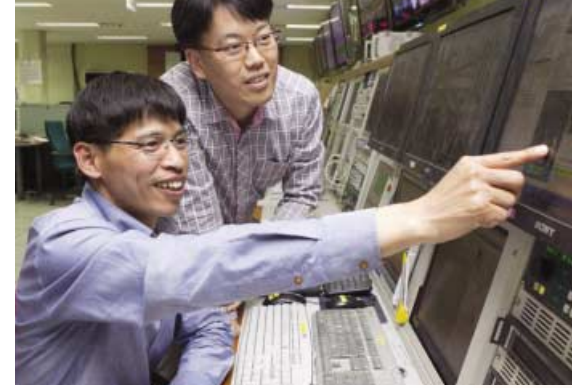
하지만 금산위성센터지부 박정서 지부장이 금산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라며 추천한 곳은 '칠백의총'이다. 때는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헌 선생과 영규 대사는 의병을 일으켜 왜군에 맞서 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조헌 선생은 당시 호남순찰사인 권율 장군이 이끄는 관군과 함께 금산 지역에 들어온 적을 협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권율 장군은 왜적의 숫자와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을 탐지하고 협공을 늦추자는 편지를 조헌선생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편지는 때를 맞추지 못했고, 조헌 선생은 의병을 이끌고 전장으로 달려가 15,000여 명의 왜적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순절한 의병의 숫자는 700여 명. 사적 제105호로 지정된 칠백의총은 이 700명의 호국영령들을 모신 성지이다.

문의 | 041-750-2391, [tour.geumsan.go.kr](http://tour.geumsan.go.kr)



# “위성전송팀의 마흔 살 신참이랄까요?”

금산위성센터지부 위성전송팀 박규서 조합원



호리호리한 체격에 순박한 미소가 일품이다. 금산위성센터지부 위성전송팀의 박규서 조합원을 만나면 누구나 그렇게 느끼리라. 그가 금산위성센터에서 일한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그는 신참에 가깝다. 올해로 불혹의 나이로 접어드는 그가 아직도 신참이라니, 무슨 까닭일까?

박 조합원이 KT에 입사한 것은 1997년 8월의 일이다. 대학에서 전기를 전공한 그는 금산위성센터의 전력실로 발령을 받아 12년 5개월 동안 일하며 전력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에 전문가가 되었다.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 전압을 조절해 위성 안테나, 사무실 등 금산위성센터의 곳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업무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조직의 자동화, 슬림화에 따라 위성전송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죠.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금산위성센터에서는 한 개 팀의 업무에 숙련되기까지 최소 3년은 걸리기 때문에 신참과 다를 바 없는 셈이죠.”

그가 위성전송팀으로 가게 된 것은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 평소 국제 위성통신이라는 특수한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한창 무르익을 시점이었던 것이다. “전기 관련 업무는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 위성통신은 매우 희소하잖아요. 그런 점에 끌렸죠. 그런데 국제전송시설 운용, 올레 IPTV 해외방송채널 수신 및 송신 등 위성전송팀의 업무는 전력실과 완전히 달라서 어렵고 힘들더군요. 특히 방송 관련 업무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방송

중계 업무를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지만 일이 고되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어지는 뿌듯한 성취감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이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적인 이벤트를 우리 금산위성센터에서 수신해, 전 국민이 안방에서 편안하게 TV를 시청하고 있을 때면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껴요. 위성전송팀에서는 영어도 필수이기 때문에 EBS 라디오 방송 등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학이지만 외국어를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박 조합원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실어준 것은 박정서 지부장을 비롯한 금산위성센터 조합원들의 배려와 도움이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 온 이들은 친 형제자매처럼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항상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지부장님, 그리고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만큼 끈끈한 정으로 뭉친 조합원들이 있어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위성서비스팀의 박정훈 선배는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잘 모를 때부터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예요.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고 싶은 분이입니다.”

박 조합원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집에서 TV로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접하거나 국제 스포츠 경기를 볼 때면 그의 얼굴이 떠오를 것만 같다. TV 화면 너머에, 그가 위성전송팀 사무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며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을 지도 모르니까.

# 다양한 전략과 전술 오가는 치열한 두뇌싸움



## KT게임월드 동호회

e스포츠라 불리는 인터넷게임은 시간과 장소는 물론 학력, 연령, 직업,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든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KT 내에도 부서와 직급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게임을 즐기며 묵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이들이 있다.

## 게이머 사로잡는 온라인 승부

KT게임월드(이하 KTGW)에서 주로 하는 게임은 e-스포츠의 시초라 불리는 스타크래프트다. 1998년 미국 블리자드에서 출시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특성이 다른 세 종족 즉 테란, 프로토스, 저그 중 한 종족을 선택해 싸움을 벌이며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신만의 독특한 전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 인터넷접속망인 배틀넷을 통한 다양한 전투, 게임 유닛을 게이머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KTGW의 시작은 지난 200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회사의 미래성장엔진 중 하나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에 있는 e스포츠를 즐기고 직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게임의 특성상 주로 온라인(배틀넷-아시아-KTGW 채널)을 통한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해 사내스타리그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6차 사내스타리그를 개최 중이다. 이와 함께 한전, 국세청, 우리은행 등 타 동호회와도 교류전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부터는 KT뿐만 아니라 KT그룹사 회원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로 발전하여 현재 180여 명이 활동하는 전사적인 동호회로 거듭났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KT그룹사 통합스타리그를 개최한 바 있다.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다 보니 대부분 전화나 메일, 메시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름과 닉네임만 알고, 얼굴을 모르는 회원들이 많다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는 사내스타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날, 좀처럼 흔치 않은 기회에 동호 회원들은 자리를 함께하며 선수들을 응원하거나 즉석에서 게릴라리그를 펼치기도 한다.





좌측상단(푸른색남방)부터 시계방향으로 고희석(CS추진본부), 홍대훈(그룹컨설팅지원실), 주재웅(망관제센터), 심광현(기업Product본부), 광범신(ollehTV 본부), 김준규(망관제센터), 김옥환(IP 플랫폼운용센터), 김용제(서울북부마케팅단 신촌), 남장현(SD본부), 김성수(경기북부마케팅단 파주), 김은중(서울남부마케팅단 영동)

### 배려와 매너 넘치는 게임의 장

현재 KT랭킹 1위인 김옥환 회원은 학창시절 Game-이라는 방송의 아마추어리그에 출연했을 정도의 고수다. 지난해 KT 그룹사 통합리그에서 우승한 KT M&S의 김우진 회원은 그룹리그와 토너먼트를 통틀어 한 세트도 지지 않고 완벽하게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로 꼽힌다. 과연 온라인게임은 어떤 매력으로 이들을 사로잡는 것일까. 김은중 총무는 스타크래프트를 바둑에 비유하며 평생 취미로서 손색이 없다고 강조한다.

“바둑이 무척 심오한 경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색깔이 있고 다양한 전략과 전술, 인생의 희로애락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스타크래프트가 그래요. 사람과 사람 간의 두뇌싸움이기 때문에 게이머마다 전략과 전술이 무척 다양하고 게임성도 훌륭합니다.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취미로 즐길 수 있고요.” 아울러 게임동호회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이와 지역을 초월한다.

서울에 있는 직원과 제주도에 있는 직원이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고,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과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사원이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온라인 게임의 또 다른 매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매너다. KT게임월드를 이끌고 있는 남장현 회장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와 게임을 하다 보면, 반말은 예사고 가끔은 험한 말도 듣는다”며 “동호회원들과 게임을 할 때는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방에 대한 매너를 지키기 때문에 맘 상할 일이 없고 승패에 상관없이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앞으로 매월 온라인 게임리리그를 추진하고, 고객사들과의 교류전도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내 동호회 활성을 위해서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모일 수 있는 동호회의 날을 만들어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GSS부문 스포츠단 지원인력을 뽑을 때 KTGW 동호회원 중에서 열정을 가진 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남 회장은 KT의 아마추어스타대회 개최를 제안하며

“KT에 대한 이미지 향상은 물론 젊은 고객층에 대한 홍보효과도 클 것”임을 강조한다. 온라인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며 회원들과 돈독한 정을 다지고 있는 KTGW 회원들. 이들은 오늘도 게임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배운다. .



영동지부 김은중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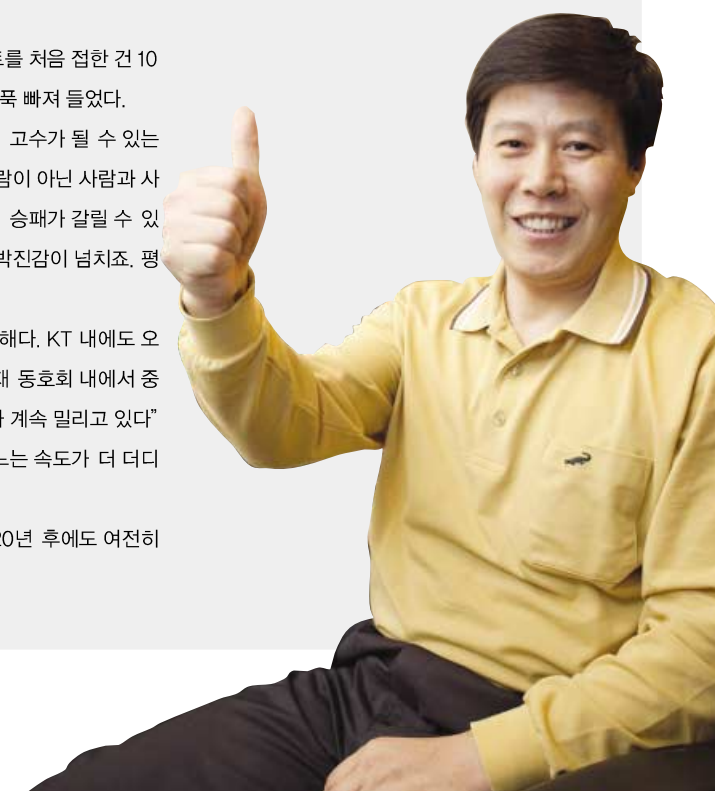
### KT게임월드 가입방법

KATE → Collaboration → Café명 검색 “KT게임월드” → 가입신청

### Interview \_ KT 게임월드 남장현 조합원 인터뷰

##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스트레스 풀니다

SD본부에서 스마트워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남장현 조합원이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접한 건 10여 년 전이다. 평소 게임을 즐겨했던 그는 스타크래프트를 접하고 그 매력에 푹 빠져 들었다. “이전의 게임은 게임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컴퓨터의 전략을 이해하면 손쉽게 고수가 될 수 있는 단순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온라인게임은 컴퓨터와 사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게임입니다. 따라서 무궁무진한 전략과 양상, 순간 판단 및 실수에 의해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매순간 상대방에 따라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죠. 평생 재미있게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종종 온라인게임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오해다. KT 내에도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게이머들이 많고, 남장현 회장 역시 그 중 한 명이다. 현재 동호회 내에서 중위권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꾸준히 가입해서 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다”며 “마음은 프로선수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드는 속도보다 실력 느는 속도가 더 더디더라”며 소탈하게 웃는다.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데 게임만한 게 없다고 말하는 그는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오랜 취미생활을 즐길 생각이다.



# 역사의 성지로 떠나는 가족 여행 지붕 없는 역사박물관, 강화

강화도는 오랜 세월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에 있던 섬이다. 고려시대 몽고와 항쟁의 근거지였고, 조선 시대에는 가장 먼저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선 곳이다. 근대에 들어서는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신미양요, 병인양요의 격전지가 되기도 했다. 선사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의 주요 무대였던 강화. 한반도 역사의 궤적을 오롯이 함께할 수 있는 강화도 구석구석으로 떠나보자.



## 강화해협의 방어 지기, 갑곶돈

갑곶돈은 강화53돈대 중 하나다. 돈대는 작은 규모의 보루를 만들고 대포를 배치해 지키는 곳이다. 갑곶돈대는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몽고와의 전쟁에서 강화해협을 지키던 주요 방어 요새였다. 조선 인조 22년(1644) 강화에 여러 진이 설치될 때 제물진에 소속된 돈대로서 숙종 5년(1679)에 축조되었다. 고종 3년(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극동함대 600여 명의 병력이 이곳으로 상륙해 강화성, 문수산성을 점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은 양현수 장군에게 패해 달아났다. 갑곶돈대 안에는 조선시대 대포가 두 곳에 전시되어있다. 이섬정에 오르면 김포와 강화도 사이를 흐르는 강화해협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주소 |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20외



강화해협의 방어 지기 갑곶돈

## 천연 요새 광성보에서 찾은 역사의 흔적

광성보는 강화도에 있는 여러 진지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산책로와 휴식공간이 잘 조성돼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온가족이 가도 좋고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광성보는 조선 효종 9년(1658)에 설치한 강화도 해안수비 진지의 하나다. 숙종 5년(1679)에 강화도의 국방시설을 확장할 때 화도돈대, 오두돈대, 광성돈대와 함께 축조하여 이에 소속시켰다. 신미양요 때(1871)는 미국 군대와 사투를 벌인 격전의 현장이다. 이 때 전사한 어재연 장군을 기리는 적적비와 신미순의총이 있다. 신미순의총은 신미양요 때 광성보 일대에서 미해군과 격전하다가 전사한 용사들의 묘가 있는 곳이다. 광성보는 외침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킨 호국 정신을 상징한다. 아이들에게는 역사교육의 현장, 어른들에게는 애국심을 되새기게 해준다.

주소 |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33



천연 요새 광성보



초지진

### 초지진에서 배우는 호국정신

초지진은 해상으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해 효종 7년(1656)에 구축한 요새다. 1870년대에 미국과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곳이기도 하다. 1871년 미국 해병이 초지진에 침략해 왔을 때 전력의 열세로 패하여 점령당한 사령이 깃들어 있다. 이 때 군기고, 화약창고 등의 군사시설물이 모두 파괴되었다. 일본이 조선을 힘으로 개항시키기 위해서 파견했던 운양호의 침공은 고종 13년(1876) 강압적인 강화도 수호조약으로 이어져 일본침략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그 뒤 허물어져 돈대의 터와 성의 기초만 남아 있었으나 1973년 초지돈을 복원하였다. 역사적 현장이었던 이곳은 성곽을 보수하고 당시의 대포를 진열하여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주소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



왕실 사찰 전등사

### 사고(史庫)를 지키던 왕실 사찰, 전등사

강화도의 대표적인 사찰은 전등사와 보문사가 있다. 보문사는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석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일여행에서는 전등사가 제격이다. 광성보에서 자동차로 2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전등사는 삼랑성(정족산성)과 정족사고(鼎足史庫), 병인양요의 흔적인 양헌수 승전비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전등사는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숙종 4년(1678)에 실록을 보관하는 정족사고가 건립되면서 왕조실록을 지키는 사찰로 왕실의 보호를 받았다. 현재 전등사에는 대웅전, 약사전, 범종 등의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대웅전과 약사전, 범종은 각각 보물 178호, 479호, 393호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문화재다. 고려-조선시대에는 사고(史庫)와 선원보각이 있었다. 병인양요 때(1866) 양헌수 장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쳐 이곳에 보관된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족보인 선원보를 지켜냈다. 전등사는 각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서 사계절 어느 때라도 자연과 하나 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한옥 민박 동명헌

###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한옥 민박, 동명헌

동명헌은 강화 남단 갯벌마을에 위치한 한옥 민박이다. 전통한옥의 멋에 현대의 편리성을 갖췄다. 자연 재료를 사용한 전통한옥 구조로 설계되어 친환경 생태 여행을 안성맞춤이다. 각 객실에는 주방기구와 TV 등이 갖춰져 있다. 갯벌이 바로 앞에 있어서 전통한옥, 갯벌체험 등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다.

### 고인들의 땅에 다시 세워진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화 고인돌공원 내에 있다. 강화대교 건너 갑곶에 위치했던 강화역사관이 고인들의 땅으로 옮겨왔다. 개국시원부터 청동기시대, 고려, 조선, 근현대사까지 옛 선조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전시돼 있다. 그동안 보관의 어려움으로 곳곳에 위탁했던 강화도 유물들을 되찾아 지하 수장고에 보관해 놓았는데, 그 유물만 2천8백여 점에 이른다. 그중 국보급 유물도 상당한데 이 유물들은 1년에 한번 박물관 개장기념일에 일반인에게 선보인다.

### 강화 역사박물관 & 고인돌 공원 관람안내

- 관람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및 설날 추석 당일 휴관)
- 관람요금: 어린이 청소년 1,000원, 성인 1,500원, 유아 및 노인 무료
- 위치: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19 (하점면 부근리 350-4)
- 홈페이지: <http://museum.ganghwa.go.kr>

### 강화 고인돌 문화축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화 고인돌을 소재로 한 축제다. 고인돌 축조과정인 '고인돌 퍼포먼스'와 원시생활을 체험하는 '고인돌 아카데미' 등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 기간: 2011년 6월 11일 ~ 2011년 6월 12일
- 장소: 강화군 하점면 고인돌광장
- 홈페이지: <http://www.ghfestival.com>

### 세계 5대 갯벌에서 바라보는 동막해변의 낙조

전등사에서 자동차로 10~20여분을 달리면 도착하는 동막해변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동막해변은 마니산 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내려가면서 바다와 만나는 곳이다. 여름철 밀물 때는 해수욕장으로, 썰물 때에는 갯벌체험장으로 이용된다. 강화 남단 해변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썰물 때면 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관광객들이 낙조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어 연말 해넘이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동막해변은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장관이다. 특히 갯벌 너머로 지는 황금빛 낙조가 눈부시게 아름답다. 이 장관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일몰 시간과 밀물썰물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썰물 시간과 일몰시간이 맞아 떨어지는 날이면 황금빛 낙조를 만나볼 수 있다.

# Voices of Readers

## 독자엽서 당첨자

최주호	서울 서초구 서초2동	류현명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임규태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도창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김선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황성재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강이슬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이을우	경남 양산시 중부동
김영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김영선	경남 진주시 진대대로
배호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3동	안철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정세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김수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김경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황성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선오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홍만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박시묵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3가	이필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보세요. 세 군대의 다른 부분이 보이시죠?  
정답 엽서에 다른 부분을 표시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Quiz Quiz

## 상조서비스 이용 간편 활용서

### 다운플랜 장례지원 서비스 사용 안내

상 발생시 다운플랜의 전문 장례지도사의 컨설팅을 받으세요.

- 전문 장례컨설턴트는 1577-1555(ARS "2")로 통화하면 됩니다.
- 연락이 빠를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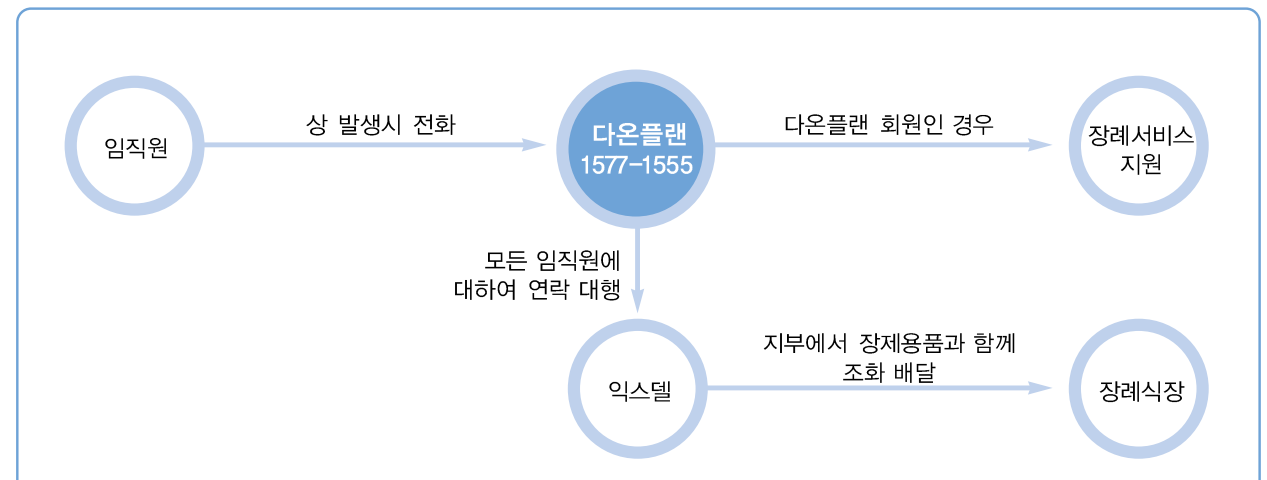
※ 다운플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제단 등)를 회원님 임의로 장례식장과 미리 계약하시면, 서비스 중복으로 회원님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전문 장례지도사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 컨설팅 받을 내용

- 상 발생 후 종료시까지 장례 절차에 대한 컨설팅
- 청결하고, 저렴하며 매너 좋은 장례식장 컨설팅
- 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음식, 화장, 매장 등에 대한 컨설팅

### 상 발생시 다운플랜 장례지원 Process

모든 임직원은 상 발생시 다운플랜(1577-1555)으로 연락하시면 one-stop 처리 됩니다



### 임직원 장제용품 신청시 필수 통보 사항

- 재직, 퇴직 여부
- 임직원 성명, 연락처(휴대폰)
- 사망자 성명 및 임직원과의 관계
- 장례식장이 선정된 경우 장례식장 주소(번지수까지)
- 사망 날짜, 발인 날짜